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Naxos new releases

8.572294

멘델스존:
교향곡 2번 '찬양의 송가'

루트 지작, 모이카 에르트만, 크리슈티안 엘즈너
윤 매르클/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

8.572299

리스:
피아노소나타 D장조,
피아노소나타 Ab장조

수잔 케이건(pf)

8.572657

아드리아노 델 살
기타 리사이틀

타레가, 소르, 토로바, 로드리고, 모리코네(가브리엘의 오보에 편곡 포함)

8.570964

생상:
클라리넷소나타, 바순소나타,
오보에소나타 외

캐나다 내셔널 아츠센터 윈드 퀸텟
스테판 르블랭(pf)

8.570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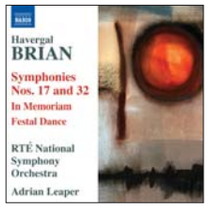
리야푸노프:
피아노협주곡 1,2번,
우크라이나 주제의 랩소디

쇼레나 친차바제(pf)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72280

바인베르크:
무반주 첼로소나타 1번,
24개의 전주곡

조셉 페이겔슨(vc)



8.5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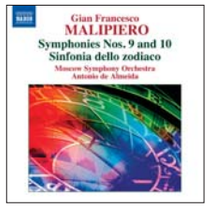
브라이언:
교향곡 17, 32번, 축제춤곡,
교향시 '추도'

애드리언 리퍼
RTE 국립 교향악단

8.572624

프레이타스 브랑코:
교향곡 4번, 교향시 '바텍'

알바로 카수토
RTE 국립 교향악단



8.570882

말리피에로:
교향곡 9, 10번,
황도 12궁의 신포니아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2157

마르케비치:
피아노협주곡, 칸타테, 이카레

마르틴 반 덴 호엑(pf)
크리스토퍼 린던-지
아른헴 필하모닉

8.572529

사일러: 천국의 사냥개
도허티: 브룩클린 다리
맥키: 낯선 유머

윌리엄 버즈
루처스 윈드 앙상블

8.559661

포스트:
현악사중주 2-4번, 가상의
코랄 판타지

호손 스트링 쿼텟

8.572192

오네게르:
바이올린소나타 1,2번, 바이올린 솔로 소나타 외

로렌스 카얄레(vn)
폴 스튜워트(pf)

8.572479

호소카와:
플루트 작품집

콜베인 비야르나손(fl)
카푸트 앙상블 단원들

[BR KLASSIK]

900711 [11 for 5]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0-9번

로린 마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900109 [Hybrid-SACD]

브루크너:
교향곡 5번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900108 [Hybrid-SACD]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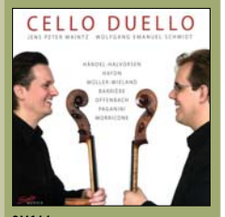
스토야노바/ 브라운/ 쉐이드/ 폴레
마리스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900703

브루크너:
교향곡 8번

라파엘 쿠벨릭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Solo MUSICA



SM146

첼로 두엘로
(첼로 이중주를 위한 작품들)

헨델: 파사칼리아, 오펜바흐: 폴로네이즈, 파가니니: 모세 변주곡 외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_922_0100 팩스: 02_922_2522 www.aulosmedia.co.kr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뮤직랜드/ 인터파크/ 애반/ 풍월당/ 예전레코드/ 하이클래식/ GM뮤직(부산)/ 뮤직프라자(종로)

www.aulosmedia.co.kr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6호 | December 2010

*Hot Issue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선율들

**Cover Story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걸작 오페라 2차분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걸작 오페라 '유럽 오페라 하우스 명연시리즈' 2차분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장벽을 깨고 국내의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오페라의 참 맛을 알리기 위해, 〈불멸의 오페라〉의 저자이자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오페라 전문가 박종호가 직접 라이선스 대상 영상들을 선정했으며, 전편 모두에 세심하게 제대로 번역된 충실한 한글 자막이 제공된다. 또한 시공사의 과감한 허락으로 〈불멸의 오페라〉 등에 올려진 해설이 그대로 내지에 수록되기에, 이 한 장의 DVD만 있더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물론, 그 프로덕션의 묘미 역시도 완전히 즐기고 감동받을 수 있는 양질의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리즈는 그동안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작품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애호가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들도 과감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오페라 팬들의 안목이 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더불어 국내 오페라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시리즈의 2차 발매분으로 선택된 5종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타이틀별 해설자료 [2차분 : 5타이틀 제작]

ADVD-013

"우리가 버린 여인, 가슴을 도려내는 절규"
06.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실황

– 우리시대 최고의 연출가 로버트 카슨이 만든 영상물 사상 최고의 〈라 트라비아타〉 연출

[줄거리] 파리의 고급매춘부 즉 코르티잔인 비올레타는 겉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결핵을 앓고 있다. 다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쾌락으로 살아가는 그녀 앞에 진정한 사랑을 외치는 청년 알프레도가 나타난다. 그의 끈질긴 구애 끝에 비올레타는 이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일 것이라고 믿으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지만 그와의 밀월 3개월 만에 알프레도의 아버지가 나타난다. 그는 집안의 명예를 들먹이며 그녀의 양보를 주장하고, 이에 그녀는 힘없이 물러난다. 사정을 모르는 알프레도는 그녀의 바람기 때문에 이별한 것이라 믿고, 사교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한다. 이에 그녀는 쓰러지는데....

*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20여종의 〈라 트라비아타〉 영상물들 중에서 단연 이 라 페니체 극장의 프로덕션은 우리가 봐야할 최우선 순위에 있는 중요한 연출이다. 베로나의 아레나 디 베로나 야외무대의 그레이엄 비크, 베를린 코미쉐 오페라 극장의 한스 노이엔펠스, 뮌헨 국립 오페라극장의 귄터 그래머 등의 프로덕션 등이 DVD로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이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의 영상물은 최고의 프로덕션이며 가장 문제적 연출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베네치아에서 올려지자마자 그 해 일본의 도쿄에서 수입하여 특별 공연을 할 정도로 당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ADVD-014

"인간사를 관조하는 푸치니의 고백록 3부작"
07. 푸치니의 〈일 트리티코〉

– 모데나 시립 오페라 극장 실황

– 세 작품으로 이루어진 3부작의 세 프리마돈나를 혼자서 연기하는 아마릴리 니차의 열연.

[줄거리] 〈일 트리티코〉는 '죽음'이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면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세 작품이 모여서 된 3부작이다. 〈외투〉에서는 파리 세느강에서 살고 있는 척박한 뱃사람들의 이야기다. 사랑과 질투를 둘러싼 피와 땀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실적인 죽음을 다룬다. 〈수녀 안젤리카〉는 세상과 떨어진 수녀원을 배경으로 젊은 수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가 있었고,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낳았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다.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잔니 스키키〉는 부자의 죽음을 둘러싼 유산분배 문제를 코믹하게 보여준다. 물욕에 눈먼 인간들의 모습이 풍자적으로 그려진다.

*

푸치니의 많은 오페라 명작들 가운데에서 숨은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 트리티코〉다. 이 작품은 푸치니의 다른 걸작들에 못지않은 서정성과 비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대중관객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그런 특성이 바로 이 작품의 장점이자 매력이기도 하다. 〈일 트리티코〉란 '3개로 된 그림이나 작품'이라는 뜻으로, 중세 유럽에서 많이 쓰던 '3면의 제단화(祭壇畵)'를 주로 일컫는다. 즉 세 개의 그림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페라 〈일 트리티코〉 역시 '죽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단막 오페라들이 나열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옴니버스 오페라이다.

제1부 : 〈외투〉 베리스모 스타일 오페라로서, 죽음을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2부 : 〈수녀 안젤리카〉 여성들만이 출연하는 오페라 세리아로서, 죽음을 아름답고 숭고한 것으로 그린다.
제3부 : 〈자니 스키키〉 코미디 즉 오페라 부파로서, 죽음을 희화(戱畵)화 즉 블랙코미디로 묘사한다.

ADVD-015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를 죽인 비운의 여인"
08. 조르다노의 〈페도라〉

–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실황

– 우리 시대 최고의 〈페도라〉 콤비인 미렐라 프레니와 플라시도 도밍고 두 거장의 역사적인 실황.

[줄거리] 러시아의 황녀인 페도라는 결혼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신랑 블라디미르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 그녀는 이웃이었던 로리스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그리고 그의 자백을 받아내어 약혼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 로리스에게 접근한다. 로리스는 진정으로 페도라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에게 비밀을 모두 밝힌다. 그의 자백 속에서 페도라는 블라디미르가 이미 로리스의 아내와 내연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그리하여 페도라와 로리스는 과거를 잊고, 둘만의 보금자리를 스위스 산 속에 꾸민다. 그러나 어느 날 페도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로리스의 어머니를 죽게 하고 말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

이 오페라는 여주인공 페도라가 부르는 소프라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가창이 요구되는 난역이다. 우리시대의 위대한 소프라노인 미렐라 프레니가 평생 맡았던 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인 역할이 바로 이 페도라다. 1990년대 이후로 이 역할이라면 전 세계의 오페라하우스를 통틀어 오직 프레니의 전유물일 정도로 이 역할에 대한 그녀의 비중은 막강하다. 이탈리아 볼로냐 극장이 도쿄에서 〈페도라〉를 공연할 때도 프레니가 주역으로 왔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프레니의 이 극장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도 역시 〈페도라〉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1994년 이 작품의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공연이었다. 바로 이 작품이 초연되었던 도시가 밀라노이며 라 스칼라는 초연되었던 테아트로 리리코 극장을 계승하는 극장이기도 하다. 이 공연에서 프레니는 당시 〈페도라〉의 테너 역인 블라디미르 역할을 가장 잘 부를 수 있었던 세기의 두 테너인 플라시도 도

밍고와 호세 카레라스, 두 남성 가수를 매일 번갈아가며 상대하면서 소프라노 역을 혼자서 매일 커버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 영상물은 그 때의 역사적인 공연을 담은 실황이다. 토스카니니에 이어 이 극장에서 영결식이 거행된 이탈리아의 위대한 오페라 지휘자 자난드레아 가바체니가 지휘하는 만년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프레니와 도밍고 외에 라 스칼라 극장의 쟁쟁한 성악가들이 등장한다.

ADVD-016

"격정적인 오페라로 다시 태어난 괴테의 명작"

09. 마스네의 〈베르테르〉

–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 빈의 대표적인 프로덕션인 안드레이 세르반의 무대. 마르첼로 알바레스와 엘리나 가란차의 명연.

[줄거리] 견습판사 생활을 하던 베르테르 원로판사의 부탁으로 그의 장녀 샬로트의 무도회에 파트너로 따라간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랑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 때서야 그녀에게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는다. 그녀가 결혼을 하지만, 베르테르의 마음은 돌아서지를 못한다. 그녀의 권유로 오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베르테르는 그녀를 찾아와서 또 한 번의 뜨거운 고백과 포옹을 한다. 그를 뿌리치는 샬로트. 충격을 받는 베르테르는 집으로 가서 권총으로 자신을 겨눈다. 달려온 샬로트는 죽어가는 베르테르를 껴안고, 그는 비로소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죽어간다.

*

마스네의 오페라 〈베르테르〉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원작의 풍미를 잘 살리고 있으면서도 또 마스네 특유의 새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특히 괴테의 원작에서는 마지막 베르테르의 자살 대목이 쓸쓸하게 표현되지만, 오페라에서는 그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샤를로트를 만나서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러나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죽어간다. 이런 것이 오페라가 주는 매력일 것이다. 독일의 문학과 프랑스의 음악이 만나는 이 오페라는 소설보다도 강렬하고 음악보다도 열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가슴에 깊이 남긴다.

ADVD-017

"사랑을 찾아 떠나지만, 제비는 다시 돌아온다"

10. 푸치니의 〈제비〉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실황

–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무대를 선사하는 그레이엄 비크의 무대. 피오렌차 체돌린스의 열창

[줄거리] 마그다는 파리 사교계의 유명 코르티잔이다. 그녀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돈 많은 애인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늘 마음이 공허한 그녀는 처녀 같은 풋풋한 사랑을 꿈꾼다. 그런 그녀 앞에 루제로라는 착한 청년이 나타나고, 그녀는 자기 신분을 숨긴 채 루제로와 사귄다. 결국 그녀는 파리 생활을 정리하고, 그와 함께 리비에라 해안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루제로는 그녀에게 청혼한다. 하지만 과거가 걸리는 그녀는 그의 사랑은 받을 수 있으나 결혼만은 승낙할 수가 없다. 결국 루제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마그다는 쓸쓸히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는 제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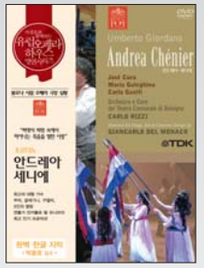
*

이 작품이 푸치니의 다른 걸작들에 비해서 이 작품의 매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진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훌륭한 연주와 좋은 연출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베네치아의 유서 깊은 라 페니체 극장의 프로덕션은 〈제비〉의 매력을 백 퍼센트 보여주는 뛰어난 프로덕션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이 극장에서 만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세련된 무대의 하나다. 연출가 그레이엄 비크는 무대는 현대적으로 꾸미거나 밝고 화사한 세팅으로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무대 역시 그러하다. 그의 무대는 푸치니가 설정한 상황이 아니라, 현대의 세련된 세팅이다.

[유럽오페라 명연시리즈 1차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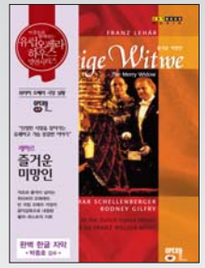
ADVD-007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지막 내 곁에 남는 건 예술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

ADVD-008
신성과 애욕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마스네: 타이스



ADVD-009
혁명의 화염속에서 피어나는 죽음을 향한 사랑
조르다노: 안드레아 세니에

ADVD-010
전부를 가진 연적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는 여인
폰키엘리: 라 조콘다



ADVD-011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유쾌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레하르: 즐거운 미망인

[유럽오페라 명연시리즈 3차분]

Coming Soon...

11	RAMEAU: (LES INDES GALANTES) Opera National de Paris 라모: 우아한 인도의 나라	OA0923D
12	R.STRAUSS: (SALOME) Royal Opera House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살로메	OA0996D
13	VERDI: (DON CARLO) De Nederlandse Opera 베르디: 돈 카를로	OA0993D
14	SHOSTAKOVICH: (LADY MACBETH OF MTSENSK) De Nederlandse Opera 쇼스타코비치: 므첸스크의 멕베스 부인	OA0965D
15	MOZART: (LE NOZZE DI FIGARO) Royal Opera House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OA0990D

Naxos

www.naxos.com

8.572461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바실리 페트렌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음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젊은 마에스트로 바실리 페트렌코. 그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사이클 4집이 출시되었다. 5번과 더불어 작곡가의 가장 걸출한 교향곡으로 손꼽히는 교향곡 10번이 이번 도전작이다. 호쾌한 스케일로 그려낸 1악장, 광포함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2악장, 드라마틱하게 조형된 마지막 악장까지 이 젊은 지휘자의 놀라운 재능을 만나보시라.

8.559643
번스타인:
바이올린소나타,
피아노트리오 외
오퍼스 투

번스타인이 남긴 극소수의 실내악 작품들을 모은 음반. 바이올린소나타와 피아노트리오는 모두 학생시절에 완성한 초기작들이며, 그가 남긴 마지막 실내악 작품인 클라리넷소나타는 이 음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윌리엄 터윌리거가 직접 바이올린소나타로 편곡한 버전으로 수록하였다. 그외 에릭 스턴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캔디드 중의 일부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270
비제:
클로비스와 클로틸데, 테 데움
여러 가수들
장 클로드 카자드쉬
릴 국립 교향악단

청년 비제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담은 흥미로운 음반이다. 그에게 로마대상의 영예를 부여했던 극적 칸타타 '클로비스와 클로틸데' 전곡과 함께 로마대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인 당재한 규모의 종교합창곡 '테 데움'이 함께 수록되었다. 후일 '카르멘'을 통해 만개했던 이 작곡가의 드라마틱한 구성력이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8.572373
마르티누:
피아노 협주곡 1,2,4번
조르조 쿠클(pf)
아서 페이건
보후슬라브 마르티누 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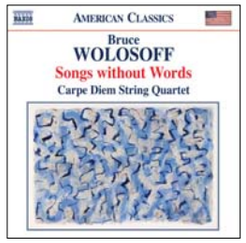
마르티누의 피아노협주곡 3,5번으로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던 마르티누 스페셜리스트 조르조 쿠클이 작곡가의 나머지 협주곡들에 도전하였다. '주문'이라는 부제의 독특한 개성의 작품인 4번과 전통적인 협주곡 구성을 지키고 있는 1,2번 모두 작곡가 특유의 드라마틱한 구성력과 화려한 색채감, 그리고 기상천외한 유머감각을 적재적소에 머금고 있다.

8.572066
헤르만 & 아히흐호른:
2–3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기교적 소품들
프리데만 아이흐호른, 레토 쿠펠(vn)/ 알렉시아 아이흐호른(va)/ 알렉산더 휠쇼프(vc)

19세기 후반 독일의 걸출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이자 저명한 음악교육자였던 프리드리히 헤르만과 파가니니의 애제자였던 요한 파울 아이흐호른 두 작곡가의 바이올린 앙상블을 위한 기교적인 소품들을 담은 음반. 헤르만의 3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치오 세트와 부를레스케, 모음곡, 그리고 2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아이흐호른의 '베네치아의 사육제' 변주곡과 '모세' 변주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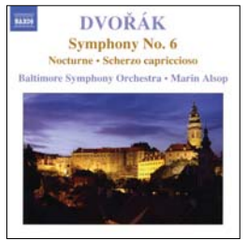
8.572173
레거:
클라리넷소나타 전곡
자넷 힐튼(cl)
제이콥 피처트(pf)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대미를 장식했던 작곡가의 한 사람인 막스 레거는 오르간 분야에서 걸출한 활약과 더불어 매력적인 실내악 작품들도 다수 완성하였다. 1902년과 1904년에 완성한 두 클라리넷소나타 Op.49의 1,2번은 그의 존경해마지 않던 브람스의 클라리넷소나타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로맨틱한 성향의 작품들이며, 1909년에 완성한 Op.107의 소나타 역시 서정미가 돋보이는 붙임성이 좋은 작품이다.



8.559663
월로소프:
현악사중주를 위한 무언가
카르페 디엠 스트링 쿼텟

브루스 월로소프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는 물론, 락밴드와 재즈 앙상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연주자로 활동한 뒤, 자신의 폭 넓은 음악적 경험을 기반으로 독특한 스타일의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다. 전통적인 현악사중주 편성을 위한 소품 연작인 '무언가'는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교묘하게 오가는 이 작곡가 특유의 음악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준다.



8.570995
드보르작:
교향곡 6번, 야상곡, 스케르초 카프리치오소
마린 알솝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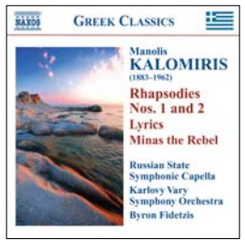
열렬한 호평과 함께 차근 차근 진행 중인 마린 알솝과 볼티모어 심포니의 드보르작 교향곡 시리즈의 최신보. 후기 삼대 걸작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보헤미아의 향토적인 정취와 브람스 풍의 독일 교향곡 전통을 훌륭히 접목시킨 수작인 교향곡 6번과 더불어, 현악사중주 4번의 느린 악장을 관현악으로 편곡한 '야상곡', 작곡가의 가장 널리 알려진 관현악곡 중 하나인 '스케르초 카프리치오소'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118
슈미트:
교향곡 4번, 후사르 노래에 의한 변주곡
바실리 시나이스키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

2차대전 직전까지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전통을 고집했던 작곡가인 프란츠 슈미트의 교향곡 사이클이 완결되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을 위한 일종의 레퀴엠으로 완성된 교향곡 4번은 슈미트의 이름을 대표하는 걸작 교향곡이다. 후사르(폴란드의 창기병)의 노래에 의한 관현악변주곡은 브람스와 레거의 전통을 계승한 수작으로, 대편성 오케스트레이션에 관한 이 작곡가의 뛰어난 재능이 발휘된 작품이다.

8.559670
레쉬노프:
교향곡 1번 '잊어버린 찬가', 이중협주곡
찰스 웨더비(vn)/ 로베르토 디아스(va)/ 마이클 스턴/ IRIS 오케스트라

조나선 레쉬노프는 현대의 미국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젊은 작곡가다. 교향곡 1번 '잊어버린 찬가'는 15세기 플랑드르 작곡가 기욤 뒤파이의 미사와 17세기 이탈리아의 유대계 작곡가 살로몬 로시의 유대전례음악, 그리고 그레고리안 찬트 등을 인용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협주곡과 제목 그대로 넘치는 운동에너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Rush'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451
칼로미리스:
랩소디 1,2번, 서정곡, 누가수도원에서 외
바이런 피데치스/ 러시안 스테이트 심포닉 카펠라, 카를로비 바리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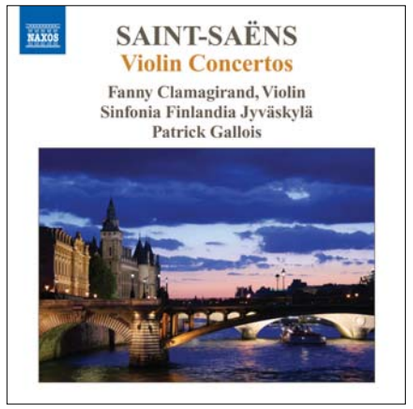
마놀리스 칼로미리스는 그리스 근현대음악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큰 이름이다. 그의 랩소디 연작은 포레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로, 피에르네와 피데치스에 의해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었다. 관현악반주의 가곡 연작인 '서정곡'과 낭송이 덧붙인 작품인 '성 누가 수도원에서', 그리고 두 편의 극적인 교향시인 '반역자 미나스'와 '용감한 여인의 죽음'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474
백스: 피아노오중주
브리지: 피아노오중주
더 티펫 쿼텟
애슐리 워스(pf)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인 애슐리 워스와 영국 실내악계의 기대주 티펫 쿼텟이 근대 영국을 대표하는 두 실내악 걸작들을 연주하였다. 백스의 오중주는 켈트 전통음악의 영향을 표현한 작품으로, 작곡가 특유의 세련된 색채와 화성이 돋보인다. 브리지의 오중주는 그가 존경하던 포레의 우아한 선율미를 환상곡 풍의 자유분방한 필치로 담아낸 작품으로, 작곡가에게 코베트 상의 영예를 부여한 걸작이다.

8.572291
영국 여성작곡가들의 바이올린소나타 (스미스, 맥컨치, 테이트 외)
클레어 하윅(vn)
소피아 라흐만(pf)

19/20세기 영국 음악계가 배출했던 걸출한 다섯 여성작곡가들의 작품을 수록한 음반. 로만체 악장의 빼어난 서정미에도 불구하고 요아힘의 혹평을 받았던 에델 스미스의 바이올린소나타, 근대적인 색채 속에 여성적인 감수성을 담아낸 맥콘치의 3개의 전주곡, 위대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의 딸인 이레네 비에냐프스키의 서정과 열정을 겸비한 바이올린소나타, 필리스 테이트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삼부작 등을 수록.



8.572037
생상:
바이올린협주곡 1–3번
판니 클라마기랑(vn)/ 파트릭 갈르와
신포니아 핀란디아

생상이 남긴 3편의 바이올린협주곡들은 모두 낭만적인 정취를 머금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들인 동시에 고도의 연주기교를 요구하는 난곡들이기도 하다. 유명한 3번은 물론 나머지 두 협주곡들도 그냥 지나치기에 아쉬운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2005년 빈 크라이슬러 콩쿠르 우승자이자 안느 조피 무터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젊은 기대주 판니 클라마기랑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8.571281
미아스코프스키:
피아노소나타 2,3번, 리스트, 스크랴빈, 라흐마니노프
이딜 비렛(pf)

1979년 뉴욕에서 녹음된 미아스코프스키의 두 피아노소나타와 스크랴빈의 5개의 전주곡 Op.74,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Op.3-2는 이듬해 미국 피나다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던 LP를 재발매한 것이며, 그보다 1년 앞서 녹음된 리스트의 '먹구름'과 '슬픔의 곤돌라'는 이번에 최초로 음반화되는 음원들이다.

8.572107
D.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Vol.13
후앙 추-팡(pf)

도메니코 스카를라티가 남긴 555편의 방대한 건반 소나타들을 꾸준히 탐구해나가고 있는 낙소스의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에디션의 13번째 음반. 2005년 클리블랜드 콩쿠르 우승자인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후앙 추-팡이 연주자로 나섰다. 작곡가의 소나타들 중에서도 가장 장편에 해당하는 K.232, K.197, K491을 비롯한 16편의 소나타들을 수록하였다.

8.571267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11, 16, 17번
이딜 비렛(pf)

이딜 비렛은 포르테시모를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큰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피아노 톤은 화려하며, 우아하고 심미적인 소노러티 역시 매혹적이다. 누구나 이 연주들을 듣고 나면 비렛의 스승이 빌헬름 켐프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라모폰"

8.572329
게디니:
피아노작품집 Vol.1
마시모 주제페 비안키(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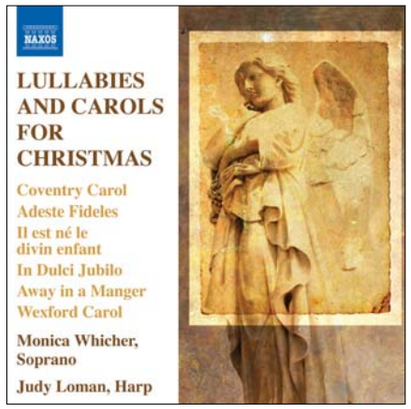
20세기 이탈리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조르조 게데니는 과거의 음악, 특히 바로크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적인 영감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의 피아노 작품들 중 가보타와 29개의 카노니, 싸움닭의 미뉴에트, 등은 작곡가의 복고풍 성향을 잘 보여준다. 서정적인 선율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9개의 소품, 쇼팽의 그것을 연상케 하는 마주르카 등의 소박한 매력도 인상적이다.

8.572444
오테:
소리의 책
랄프 판 라트(pf)

독일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한스 오테의 '소리의 책'(Das Buch der Klaenge)는 필립 글래스와 스트비 라이히의 미니멀리즘, 아르보 패르트와 존 태브너 풍의 신비주의 음악, 구르지에프의 명상용 음악, 존 케이지의 아방가르드 스타일 등등을 함축해 놓은 독특한 성격의 피아노 작품집이다. 그동안 낙소스를 통해 제프스키, 태브너, 아담스 등의 걸출한 음반을 내놓았던 랄프 판 라트의 최신보.

8.572294
멘델스존:
교향곡 2번 '찬양의 송가'
루트 지작, 모이카 에르트만, 크리슈티안 엘즈너
윤 매르클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

오라토리오 '엘리야'에 이어서 윤 매르클이 선보이는 멘델스존의 종교합창곡 2탄. 교향곡 2번 '찬양의 송가'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400주년을 기념하여 완성한 작품으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그 모델이 되었다. 루터교 성경에서 텍스트를 발췌한 이 작품은 1840년 라이프치히에서의 초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루트 지작을 비롯한 실력파 가수들의 열창이 연주의 완성도를 더 높였다.



8.572510
크리스마스를 위한 자장가와 캐럴들
모니카 휘처(sop)
쥬디 로만(ha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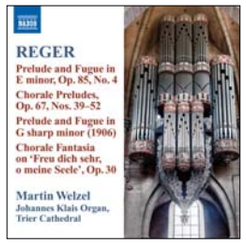
12세기의 중세 캐럴에서부터 현존 작곡가들의 최신 창작곡에 이르기까지 크리스마스를 위한 캐럴과 아기 예수를 위한 잔잔한 자장가들을 담은 음반. 캐나다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모니카 휘처와 토론토 심포니 수석 출신의 프리랜서 하프 연주자 주디 로만이 아름다운 시즌 음반을 출시하였다. 간주곡처럼 적절히 삽입된 하프 독주곡들의 투명한 아름다움도 각별하다.

8.572325
클레멘티: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Op.44 Volume 1
알레산드로 마랑고니(pf)

무치오 클레멘티는 피아노 비르투오조의 선구자 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3권의 책으로 구성된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은 피아노에 대한 이 작곡가의 모든 노하우가 집대성된 방대한 규모의 기념비적인 피아노 연습곡집이다. 낙소스를 통해 선보인 로시니 피아노작품 시리즈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탈리아의 젊은 기대주 알레산드로 마랑고니 간결명료한 연주가 빛난다.

8.572299
리스:
피아노소나타 D장조, 피아노소나타 Ab장조
수잔 케이건(pf)

미국의 학구파 피아니스트 수잔 케이건이 진행 중인 페르디난트 리스의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의 네 번째 음반. 리스의 소나타와 소나티나들은 스승인 베토벤의 영향을 뚜렷히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의 슈베르트나 쇼팽을 예견하는 듯한 낭만적인 특징 또한 함께 드러낸다. 수록된 두 작품은 그의 소나타로는 대작에 속하는 것들로 특히 주제와 론도 풍으로 구성된 D장조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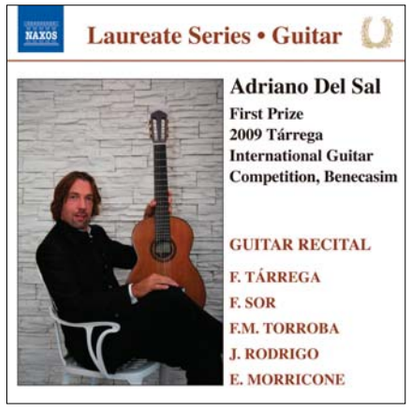


8.570960
레거:
오르간 작품집 vol.10
마르틴 벨첼
(트리어 대성당 오르간)

낙소스에서 진행 중인 막스 레거 오르간 작품 전집의 10번째 음반. 52개의 독일 개신교 코랄에 의한 코랄 프렐류드 중 39-52의 14곡과 바흐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두 편의 전주곡과 푸가, 그리고 코랄 '크게 기뻐하라, 내 영혼아'에 의한 코랄 환상곡 등을 독일 트리어 대성당의 요하네스 클라이스 오르간의 장중하고도 화려한 사운드로 수록하였다.

8.572178
존슨:
왕자의 알메인 외 류트 독주곡들
나이젤 노스(lute)

낙소스를 통해 걸출한 다울랜드 류트 솔로곡 전집을 완성했던 영국의 간판 류트 연주자 나이젤 노스가 셰익스피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 로버트 존슨의 류트 독주곡들에 도전하였다. 특별 제작된 10현 류트와 오리지널 필사본의 악보를 토대로 완성한 녹음으로, 알메인, 파반느, 갈리어드, 판타지 등등의 17세기 전반기 영국 류트 음악의 고아한 매력을 이 신보를 통해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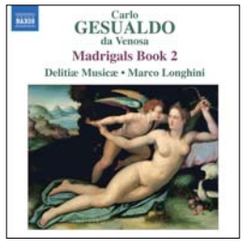


8.572657
아드리아노 델 살 기타 리사이틀
타레가, 소르, 토로바, 로드리고, 모리코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편곡 포함)

2009년 타레가 콩쿠르 우승자인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아드리아노 델 살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소르의 판타지 Op.7, 모레노 토로바의 6개의 성격적 소품들, 파야를 추모하는 로드리고의 작품인 '기도와 춤', '알보라다', '아랍 카프리초', '엘 콜룸피오'를 비롯한 타레가의 소품들,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라는 타이틀로 모 TV 프로그램을 통해 너무나 유명해진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의 기타 독주 편곡을 수록.

8.557345
헨체:
기타 작품집 Vol.2
프란츠 할라스(guitar)/ 안나 토르게(mondolin)/ 크리스티나 비안키(harp) 외

독일 현대음악계의 큰 이름인 한스 베르너 헨체의 기타를 위한 작품들을 담은 두 번째 음반. 기타소나타 1번 '왕의 겨울음악'은 셰익스피어의 캐릭터들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어린이 오페라 '폴리치노'의 선율을 기타독주곡으로 편곡한 '3개의 동화 그림', 그리고 기타, 만돌린, 하프 삼중주를 위한 '칼리용, 레치타티프, 마스크', 기타협주곡 '애올리아의 하프' 등을 수록하였다.



8.570549
제수알도:
마드리갈 2권
마르코 롱기니
델리티애 무지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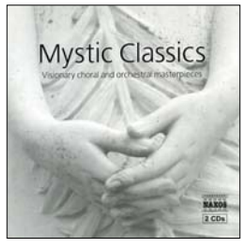
베노사의 영주였던 카를로 제수알도는 외도를 한 아내와 연적을 살해한 살인자로, 그리고 당대로는 획기적일 정도로 대담한 반음계 선율을 즐겨 애용했던 아마추어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시리즈로 큰 호평을 얻었던 델리티애 무지캐가 제수알도 마드리갈 시리즈의 2탄에는 마드리갈 2권 외에도 작곡가가 남긴 단 두 편의 기악작품들까지 함께 수록되었다.

8.572595
스웨인:
스타바트 마테르, 마니피카트, 고요한 땅 외
여러 가수들/ 라파엘 월피시(vc)
그레이엄 로스/ 더 드미트
리 앙상블

현재 영국 합창음악계의 주목받는 작곡가인 길스 스웨인의 합창음악은 튜더시대의 영국 폴리포니 음악의 전통에서부터 아프리카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음악적 스타일을 포괄한다. 콩고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마니피카트, 40성부의 합창단과 첼로독주를 위한 대작인 '고요한 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해를 기원하는 감동적인 작품인 '스타바트 마테르' 등을 수록하였다.

8.660277–78 **[2CDs]**
로시니:
라 가제타
여러 가수들
크리스토퍼 프랭클린
체코 챔버 솔로이스츠

'라 가제타'는 로시니가 '세비야의 이발사'와 '라 체네렌톨라' 사이에 완성했던 작품으로 작곡가의 유일한 나폴리 풍의 코믹 오페라다. 신문광고로 사위를 구하려는 아버지와,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딸이 펼치는 우스꽝스런 소동을 다룬 이 오페라는 전성기 로시니의 넘치는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수작이다. 본 음반은 2007년 빌트바트의 로시니 페스티벌 실황을 담았다.



8.570225–26 **[2CDs]**
Mystic Classics
(신비로운 분위기의 합창과 관현악)
Various Artists

'얼윈의 '마법의 섬', 고레츠키의 교향곡 3번의 2악장, 말러 교향곡 2번의 피날레,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7번 '빛의 천사', 호바네스의 교향곡 4번, 교향곡 20번, 교향곡 53번의 일부, 홀스트의 행성 중 '해왕성, 신비로운 자', 태브너의 첼로협주곡 '성모의 보호막' 중 일부, 패르트의 수난곡 중 일부 등등 신비롭고도 영적인 분위기의 관현악곡과 합창곡들을 2장의 CD에 수록한 음반.

8.578041–42 **[2CDs]**
그레이트 왈츠
(에센살 컬렉션)
Various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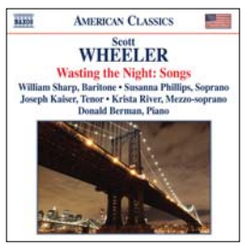
레하르의 '금과 은', '메리위도우', 발트토이펠의 '여학생', '고독', '스케이터즈'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 '황제', '빈 숲 속의 이야기', '봄의 소리',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에프게니 오네긴'의 왈츠,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왈츠,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중 왈츠 등등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왈츠들을 모은 음반.

8.570964
생상:
클라리넷소나타, 바순소나타, 오보에소나타 외
캐나다 내셔널 아츠센터 윈드 퀸텟
스테판 르블랭(pf)

관악기를 위한 생상의 다양한 실내악 작품을 담았다. 만년의 원숙한 역량을 담아낸 뛰어난 걸작들인 목관 소나타 삼부작(오보에소나타 Op.166, 클라리넷소나타 Op.167, 바순소나타 Op.168)을 비롯하여,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덴마크와 러시아 노래들에 의한 카프리스, 극초기의 생기로운 작품인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타란텔라 등을 수록.

8.572499
쇼팽:
가곡 전집
올가 파시츠닉(sop)
나탈랴 파시츠닉(pf)

쇼팽은 피아노와 동의어로 여겨지는 이름이지만, 의외로 가곡 분야에서도 매력적인 작품들을 소수 남겼다. 이 음반에는 화려한 피아노 반주와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쇼팽의 로맨틱한 오리지널 가곡 전곡 외에도 프랑스 가수 파울랭 비아르도가 매력적인 가곡으로 편곡한 마주르카 4 작품도 함께 수록되었다.



8.559658
휠러:
가곡집
윌리엄 샤프(br)/ 수잔나 필립스(sop)/ 카리스타 리버(ms)/ 도날드 베르만(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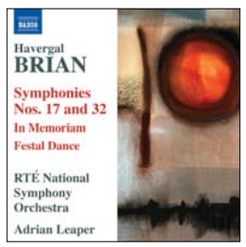
오페라 '보스턴의 건설'로 유명한 스캇 휠러는 성악장르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존 미국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에밀리 딕킨슨의 시에 곡을 붙인 '일요일 노래', 블레이크의 묵시적인 시를 사용한 연가곡 '천국과 지상',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연가곡 'Wasting Night', 모차르트의 여러 선율들을 반주에 차용한 흥미로운 작품인 '모차르트 1935' 등등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가곡들을 망라하였다.

8.570783
리야푸노프:
피아노협주곡 1,2번, 우크라이나 주제의 랩소디
쇼레나 친차바제(pf)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의 민족주의 계열 작곡가인 세르게이 리야푸노프는 5인조의 리더였던 발라키레프의 열렬한 추종자였다. 글린카 상을 수상한 작품인 피아노협주곡 1번은 바로 발라키레프에게 헌정되었다. 러시아를 대표할 만한 로맨틱협주곡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피아노협주곡 2번과 리스트를 연상케 하는 초절기교의 작품인 우크라이나 주제의 랩소디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280
바인베르크:
무반주 첼로소나타 1번, 24개의 전주곡
조셉 페이겔슨(vc)

바인베르크가 1969년에 완성한 무반주 첼로를 위한 24개의 전주곡은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 완성된 작품으로, 바흐의 평균율이나 쇼팽의 전주곡과 유사한 조성배열을 통해 무반주 첼로의 표현력을 극대화한 걸어올린 작품이다. 이보다 앞서 1960년에 역시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 완성한 작품인 무반주 첼로소나타는 다분히 기교 지향적인 전주곡에 비해 한결 서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8.572020
브라이언:
교향곡 17, 32번, 축제춤곡, 교향시 '추도'
애드리언 리퍼
RTE 국립 교향악단

영국 작곡가 하버걸 브라이언은 96세의 긴 생을 살면서 32편의 교향곡을 완성하였다.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32번은 그가 92세의 나이에 완성한 작품임에도 탄탄한 구성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환상곡 풍의 아담한 교향곡인 교향곡 17번과 1910년 사망한 영국왕 에드워드 7세를 추모하는 장중한 교향시 'In Memoriam', 그리고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으로 계획되었다가 독립곡으로 마무리된 '축전춤곡'을 수록.

8.572624
프레이타스 브랑코:
교향곡 4번, 교향시 '바텍'
알바로 카수토
RTE 국립 교향악단

근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루이스 데 프레이타스 브랑코의 교향곡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마지막 교향곡인 4번은 교향곡 2번과 마찬가지로 그레고리안 찬트의 선율에 기초한 작품으로, 신고전주의의 단정한 양식미 속에 로맨틱한 감성을 풍부하게 담아낸 작곡가의 역작이다. 동양풍의 주제에 대한 변주곡의 형식을 갖춘 독특한 교향시인 '바텍'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882
말리피에로:
교향곡 9, 10번, 황도 12궁의 신
포니아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20시기 이탈리아 관현악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말리피에로의 교향곡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Zodiac Symphony는 제목 그대로 황도 12궁의 각 별자리들을 표현한 12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표제음악으로, 이 작곡가의 뛰어난 관현악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탄식'(Ahime)이라는 부제의 교향곡 9번과 헤르만 세르헨에게 헌정된 교향곡 10번 '아트로포'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157
마르케비치:
피아노협주곡, 칸타테, 이카레
마르틴 반 덴 호엑(pf)
크리스토퍼 린던-지
아른헴 필하모닉

이고르 마르케비치는 지휘로 전향하기에 앞서 작곡가로서 음악적 재능을 과시했었다. 피아노협주곡은 불과 17세 때 완성한 작품임에도, 프로코피에프나 버르톡을 연상케 하는 준수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장 콕토의 시에 곡을 붙인 칸타테는 디아길레프의 발레 뤼스를 위해 완성한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이카르'(이카루스) 역시 발레 뤼스를 위한 발레 '이카르의 비행'을 관현악으로 개작한 것이다.

8.572529
사일러: 천국의 사냥개
도허티: 브룩클린 다리
맥키: 낯선 유머
윌리엄 버즈
루처스 윈드 앙상블

존 맥키의 'Strange Humor'는 아프리카 타악기의 리듬을 동양풍 선율에 접목한 작품이며, 제임스 사일러의 '천국의 사냥개'는 신의 은총을 구하는 구도자의 영적 여행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이클 도허티의 '브룩클린 다리'는 이 다리에서 조망한 동서남북의 네 가지 경치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팀파니와 관악앙상블을 위한 'Raise the Roof'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오마주 작품이다.

8.559661
포스트:
현악사중주 2-4번, 가상의 코랄
판타지
호손 스트링 쿼텟

뉴욕 출신의 데이비드 L 포스트는 현악사중주 장르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다. 그의 현악사중주 4번은 사진작가 아벨라도 모렐의 세 작품에서 얻은 영감을 각각 담은 악장들로 구성된 작품으로 퓰리처상의 후보작으로 올랐던 이 작곡가의 대표작 중 하나다. 가상의 코랄에 의한 판타지는 체코 작곡가 요제프 수크의 아름다운 작품인 '옛 체코 코랄에 의한 명상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개작한 작품이다.

8.572347
투르느미르:
가곡집
마이클 번디(br)/ 헬렌 크래이포드(pf)

샤를 투르느미르는 근대 프랑스 오르간 악파의 주요 작곡가들 중 한 사람이지만, 교향곡, 가곡, 실내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의 가곡들은 대부분 그의 활동 초기에 완성된 것들로 프랑스 근대 가곡 특유의 섬세함과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바리톤과 소프라노 이중창 곡인 '성스런 대화'를 비롯하여 이 작곡가의 대표 가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

8.572126
하이든:
미사 브레비스, 하모니 미사
트리너티 콰이어/ J 오웬 버딕 & 제인 글로버
레벨 바로크 오케스트라

미사 브레비스는 하이든이 자신의 첫 근무지였던 성 슈테판성당을 떠나기 직전인 십대 후반에 완성한 초기작으로, 청년 작곡가의 신선하고도 비범한 재능이 빛나는 작품이다. 함께 수록된 하모니미사는 1802년 에스테르하지 공작 부인의 명명축일을 위해 완성한 원숙기의 작품으로 당시 유행하던 관악밴드(Harmonie) 편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8.572192
오네게르:
바이올린소나타 1,2번, 바이올린
솔로 소나타 외
로렌스 카얄레(vn)
폴 스튜워트(pf)

프랑스 6인조의 한 사람인 오네게르는 3편의 교향곡과 '퍼시픽 231'과 같은 관현악들과 '화형대 위의 잔다르크'나 '다비드왕'과 같은 합창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지만, 실내악 분야에서도 뜻밖의 매력적인 작품들을 여럿 남겼다. 3편의 바이올린소나타들과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에는 이 작곡가의 서정적인 선율미와 기교적인 난해함이 적절히 조합되어 있다.

8.572479
호소카와:
플루트 작품집
콜베인 비야르나손(fl)
카푸트 앙상블 단원들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토시오 호소카와는 자신의 음악을 '시간과 공간의 서예'로 정의 내린다. 플루트는 그의 음악에 가장 적합한 표현수단이다. 플루트 솔로 곡들인 'Vertical Song I'과 'Sen I'은 수묵의 농담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 작품들이며, 플루트와 현악사중주를 위한 'Fragment II',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일종의 무언가인 'Lied',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를 표현한 플루트협주곡 'Voyage V' 등을 수록.

8.572422
부소니:
소나티나 3,6번, 돈조반니 변주곡,
바그다드의 이발사 판타지 외
볼프 하르덴(pf)

19/20세기 전환기를 대표하는 피아노 비르투오조이자 작곡가였던페루치오 부조니의 피아노 작품들 중에서 여러 유명 오페라의 선율들을 패러프레이즈한 작품들을 담은 음반. 돈조반니의 칸초네타에 의한 변주연습곡, 바그너의 지크프리트의 장송행진곡의 피아노 편곡, 비제 카르멘에 의한 소나티나 6번, 코르넬리우스의 바그다드의 이발사에 의한 판타지, 골드마크의 메를린에 의한 콘서트 판타지 등을 수록.

8.572266
탄스만:
25개의 간주곡, 작은 모음곡, 즉
흥 왈츠
엘리언 레이예스(pf)

알렉산드르 탄스만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1919년 이후 파리에 정착한 이후 대서양 양안을 오가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던 작곡가다. 24개의 간주곡은 고요한 서정성에서부터 비극적인 중량감에 이르는 다양한 감성을 표현한 작품집이며, '자장가', '명상곡', '샹송 폴로네이즈', '카프리스' 등의 개성적인 악장들로 구성된 작은 모음곡과 라벨을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작품인 '즉흥적 왈츠'가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359
차이코프스키/코른골트/코너스:
바이올린협주곡
야샤 하이페츠(vn)/ 발터 서스킨트, 알프레드 발렌슈타인 외
필하모니아, LA 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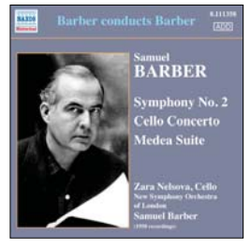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은 하이페츠의 장기 레퍼토리 중 하나다. 본 음반에 수록된 연주는 1950년 7월 월터 서스킨드/필하모니아와 협연한 RCA 음반을 복각한 것이다. 그와 함께 하이페츠를 위해 완성된 두 협주곡들인 줄리어스 코너스, 에리히 코른골트의 협주곡들, 그리고 윌리엄 스테인버그와 협연한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바이젠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381
알프레도 코르토 1929-1937 레
코딩
퍼셀, 바흐, 멘델스존, 프랑크,
생상

알프레도 코르토는 대단히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했던 피아니스트였다. 1929년부터 1937년 사이의 레코딩을 담은 본 음반에는 이 연주자의 이러한 측면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자신이 편곡한 바흐의 협주곡 BWV596과 아리오소, 헨더슨이 편곡한 퍼셀의 춤곡들이 담겨 있으며, 멘델스존, 프랑크, 생상의 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357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죽음의 섬, 보칼리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니스트와 지휘자로도 자신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연주하였다. 본 음반에는 뵈클린의 유명한 그림에서 받은 인상을 음산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표현한 '죽음의 섬'과 작곡가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3번, 그리고 작곡가 자신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보칼리제를 수록하였다. 모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것으로 교향곡은 1939년, 나머지 두 작품은 1929년의 녹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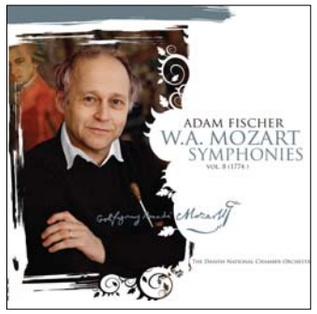


8.111358
바버:
교향곡 2번, 첼로협주곡, 메데아
차라 넬소바(vc)
사무엘 바버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브 런던

사무엘 바버의 자작자연 음반. 세 수록곡 모두 1950년 런던에서 녹음된 덱카 음반을 복각한 것이다. 2차대전 중 공군에서 복무하던 시절의 작품인 교향곡 2번, 오페라 '메데아'를 발레로 개작했던 '마음의 동굴'에서 발췌한 관현악 하이라이트, 그리고 20세기 중반의 위대한 여류 첼리스트인 자라 넬소바가 독주를 맡은 첼로협주곡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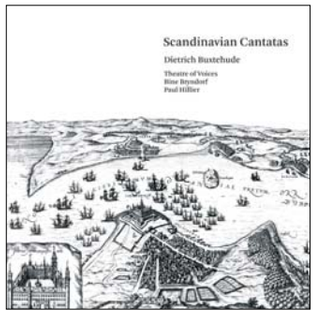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543 **[Hybrid-SACD]**
모차르트:
교향곡 28-30번
아담 피셔
덴마크 국립 챔버 오케스트라

도라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이든의 교향곡 전집을 완성시켰던 헝가리 지휘자 아담 피셔는 명실상부한 고전 교향곡의 스페셜리스트이다. 그가 덴마크 국립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진행 중인 모차르트 교향곡 시리즈의 최신보인 이번 음반에는 20번대 교향곡들 중에서 25번에 필적하는 인기작인 29번과 더불어 고전 교향곡의 단아한 매력을 머금은 28번과 30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6.220534 **[Hybrid-SACD]**
북스테후데:
스칸디나비아 칸타타
폴 힐리어
시어터 오브 보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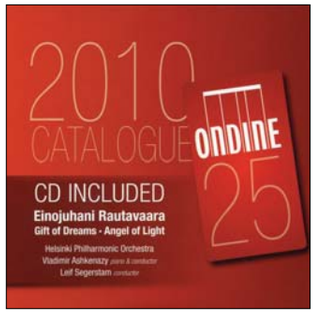
덴마크 출신의 작곡가 북스테후데는 청년 바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북독일 오르간 악파의 대표 작곡가다. 그는 오르간음악 외에도 종교합창곡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본 신보에는 그가 스웨덴어와 라틴어 텍스트들로 완성한 종교합창곡들과 오르간을 위한 파사칼리아 등이 수록되었다. 현존 최고의 합창지휘자 폴 힐러가 지휘하는 티어터 오브 보이시스의 정교한 앙상블이 돋보인다.

ONDINE Ondine

www.ondine.net

ODE 1165-2
레스피기:
믹소리디아 선법의 피아노협주곡, 로마의 분수
올리 무스토넨(pf)
사카리 오라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림스키코르사코프와 라벨을 사사했던 레스피기는 두 스승들 못지 않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랑하는 관현악곡들로 근대 이탈리아의 기악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존경받고 있다. 믹소리디아선법의 협주곡은 제목 그대로 고아한 교회선법을 빌려서 완성한 독특한 분위기의 피아노협주곡이며, 그의 대표작인 로마3부작 중의 가장 화려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로마의 분수'가 함께 수록되었다.



ODE 699-2
라우타바라:
피아노협주곡 3번 '꿈의 선물', 교향곡 7번 '빛의 천사'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pf, cond)
레이프 세게르스탐/ 헬싱키 필하모닉

핀란드가 자랑하는 고품격 레이블 Ondine의 2010년 카탈로그와 핀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두 대표걸작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레이프 세게르스탐이 지휘한 교향곡 7번 '빛의 천사'는 칸느 클래식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독주와 지휘를 겸한 피아노협주곡 3번 '꿈의 선물'은 Classicstoday 10/10, Klassik Heute 10의 호평을 받았다.

SDG Soli Deo Gloria [S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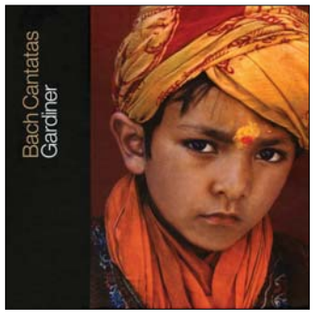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 171 **[2CDs]**
JS 바흐: 칸타타 Vol.12
조안 런, 질리안 키스, 수잔 해밀턴(sop)/ 로빈 타이슨, 힐러리 섬머즈(alt)/ 제임스 질크리스트, 윌리엄 켄덜(te)/ 페터 하비(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CD1] 삼위일체 후 22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55
나는 가난한 자, 나는 죄악의 종 BWV60
오, 영원이여, 우뢰 같은 목소리여 BWV89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하리오 BWV115
내 마음이여 준비하라

[CD2] 삼위일체 후 23, 27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52
거짓된 세상이여 BWV139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BWV140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BWV163
주께 속한 자 누구에게나

가디너의 바흐 칸타타 순례 시리즈의 Vol.12에는 투팅 올 세인츠 처치와 윈체스터 대성당에서 각각 녹음된 삼위일체 후 22번째와 23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 8편이 수록되었다. 바흐가 남긴 교회칸타타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기작인 BWV140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가 이번 신보에 수록되어있다. 스토코프스키 등의 여러 편곡을 통해 우리 귀에 너무나 친근한 이 코랄 선율이 가디너의 정갈한 손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매력을 빛낸다. 테너 솔로를 위한 바흐의 유일한 칸타타인 BWV55에서는 제임스 질크리스트의 단정한 가창이 돋보이며, 섬세한 관현악반주와 매력적인 아리아들을 담은 BWV115도 함께 수록되었다. 원래 CD1의 수록곡들은 이튼 채플에서 연주되었지만, 당시 히드로 공항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이 번호의 칸타타들만은 후일 투팅에서 다시 재녹음되었다.



SDG 174 **[2CDs]**
JS 바흐: 칸타타 Vol.18
캐롤린 맥파든, 막달라네 코체나(sop)/ 베르나르다 핑크, 샐리 브루스-페인, 마이클 챈스(alt)/ 크리스토퍼 겐츠, 제임스 질크리스트(te)/ 디트리히 헨셀, 피터 하비(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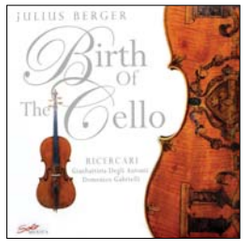
[CD1] 성탄절과 공현절을 위한 칸타타 BWV63
크리스천이여 이 날을 기억하라 BWV191
주님께 영광있으라 BWV65
그들은 모두 사바에서 오도다 BWV123
사랑하는 임마누엘

[CD2] 공현절 후 첫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32
사랑하는 예수, 나의 소망 BWV124
나의 예수를 버리지 않으리라 BWV154
내 사랑 주를 잃었도다

본 Vol.18은 가디너의 바흐 순례 시리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음반이다. 2000년 한 해 동안 유럽 곳곳을 누비며 교회력 별로 정리한 바흐의 교회칸타타 전곡을 공연했던 가디너의 이 초인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음반으로도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다. 본 신보에는 (초기 유니버설을 통해 발매한 음반을 제외한) 이 프로젝트의 전체 음반 27장의 수록곡들을 보기 좋게 정리한 브로셔가 함께 수록되었다. CD1은 성탄절과 공현절을 위한 칸타타들 4편을 담고 있다. 알토 베르나르다 핑크의 절창이 돋보이는 BWV63은 이 대하 프로젝트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호른의 장엄한 울림과 오보에 다 카치아의 이국적인 소노러티가 인상적인 BWV65,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스타일로 음악화한 BWV154와 BWV32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112
첼로의 탄생
(안토니 & 가브리엘리: 리체르카)
율리우스 베르거(vc)

독일의 학구파 첼리스트 율리우스 베르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첼로인 안드레아 아마티가 1566년 프랑스 왕 샤를 9세를 위해 완성했던 첼로로 가장 오래된 첼로 독주를 위한 작품들인 잔바티스타 델리 안토니와 도메니코 가브리엘리의 리체르카들을 연주한 특별한 음반. 바흐의 위대한 걸작의 선구자 격에 해당하는 이들 작품들의 담백한 아름다움이 아마티 첼로의 고아한 음색을 통해 한층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SM142
비발디, 블라베, 디우파르, 베라치니의
오보에 작품들
라몬 오르테가 퀘로(ob)
루이제 부흐베르거(vc)
페터 코플러(cemb)

2007년 뮌헨 ARD 콩쿠르 우승 이후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수석 오보이스트로 활동 중인 라몬 오르테가 퀘로의 솔로 데뷔 레코딩. 그가 평소에 선호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바로크 레퍼토리들에 도전하였다. 비발디의 오보에 소나타 RV28,53과 디우파르의 오보에와 통주저음을 위한 춤곡 모음곡 외에도 블라베의 두 개의 플루트소나타와 베라치니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g단조를 오보에로 연주하였다.

SM146
첼로 두엘로 (첼로 이중주를 위한 작품들)
헨델: 파사칼리아
오펜바흐: 폴로네이즈
파가니니: 모세 변주곡 외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폴로네이즈 수록뮌헨 ARD 콩쿠르 우승자인 옌스 페터 마인츠와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우승자인 볼프강 엠마누엘 슈미트가 결성한 첼로 듀오인 첼로 두엘로가 선사하는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보석 같은 작품들. 과거 한 컴필레이션 음반을 통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오펜바흐의 '폴로네이즈'와 파가니니의 '모세 환상곡', 할보르센이 편곡한 헨델의 '파사칼리아',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에 삽입되었던 엔리오 모리코네의 '하모니카' 등을 수록.

Capriccio

www.capriccio.at

C49550 **[8 for 2]**
카엘 슈나이더 리코더 에디션
헨델, 텔레만, 바르산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바로크 리코더 소나타 컬렉션

미카엘 슈나이더는 1978년 뮌헨 ARD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지금까지 독일을 대표하는 리코더 연주자로 맹활약 중인 연주자다. 카메라타 퀼른의 창립자였으며, 베를린 예술대학과 프랑크푸르트 음대의 교수로도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었다. 최근에는 지휘자로 변신하여 바로크 오페라 부문에서 걸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본 Box set에는 그가 Capriccio를 통해 남긴 여러 레코딩들 중에서 바로크 리코더 음악을 담은 8장을 간추린 것으로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 실력파 연주자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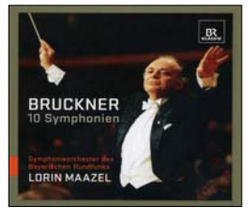
[CD 1] 헨델 리코더 소나타 전곡
[CD 2] 텔레만 리코더 소나타 전곡
[CD 3] 바르산티 리코더 소나타 전곡
[CD 4] 이탈리아 바로크 리코더 작품들(스카를라티, 삼마르티니, 만치니, 코렐리 외)
[CD 5] 영국 바로크 리코더 작품들(로크, 퍼셀, 파이시블 외)
[CD 6] 독일 바로크 리코더 작품들(바센내르, 뢰일레트, 텔레만, 헨델 외)
[CD 7-8] 프랑스 바로크 리코더 작품들 I-II(로맹, 디유파르, 쿠프랭, 브라운, 다니캉-필리도르 외)

BR Klassik

www.br-klassik.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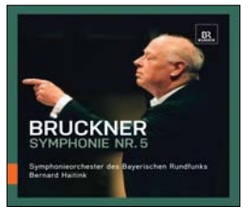
900105 **[Hybrid-SACD]**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마리스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가 오슬로 필과 함께 녹음했던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은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곡 최고의 명연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또 하나의 얀손스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이 등장했다. 쌓인 경륜 만큼이나 한층 더 확장된 스케일과 여유로운 흐름으로 이전작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인기 교향곡을 들려주고 있으며,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탁월한 합주력도 연주의 완성도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폭발적인 열기와 감미로운 서정을 극적으로 대비시킨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의 감동도 각별하다.



900711 **[11 for 5]**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0-9번)
로린 마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로린 마젤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브루크너의 교향곡 10곡(0번 포함)을 무대에 올렸었다. 이 실황들의 레코딩은 과거 한정적으로 발매되었었는데, 이제 BR-Klassik의 로고를 달고 인터내셔널로 재발매되었다.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연주된 녹음들인 만큼 번호 별로 연주 편차가 고르며, 로린 마젤의 호방한 지휘도 과거 베를린 필과의 녹음들에 뒤지지 않는 감동을 만들어낸다.



900109 **[Hybrid-SACD]**
브루크너:
교향곡 5번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은 후기 3대 걸작에 버금가는 장중한 규모와 심원한 음악적 깊이를 겸비한 역작으로, 특히 거대한 푸가 형식인 마지막 악장은 대위법에 정통했던 이 작곡가의 장점이 잘 발휘된 부분이다. 본 음반은 2010년 2월 12일에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브루크너와 말러 두 작곡가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의 노거장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봉을 잡았다.

900108 **[Hybrid-SACD]**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스토야노바/ 브라운/ 쉐이드/ 폴레/ 마리스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앞서 Arthaus를 통해 DVD로 발매되었었던 마리스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2007년 10월 27일 바티칸 콘서트 실황이 Hybrid-SACD로 등장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비롯한 7,000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펼쳐졌던 이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은 얀손스의 열정적인 지휘와,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열창,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혼신의 연주가 어우러진 감동의 명연이다.

900703
브루크너:
교향곡 8번
라파엘 쿠벨릭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60주년 기념 박스에 포함되었던 라파엘 쿠벨릭 지휘의 브루크너 교향곡 8번 1977년 실황이 낱장으로 발매된다. 61년부터 79년까지 장기간 수장을 역임했던 그는 비교적 역사가 일천한 이 악단을 세계적인 최정상급의 연주단체로 급성장시켰던 장본인이다. 강력하고도 거침 없는 추진력으로 브루크너의 가장 거대한 교향곡을 구축해나가는 이 음반에서 그의 거장성이 다시금 빛난다.

Proprius

www.proprius.com

PRCD 2057
episode on a journey
(기타와 침발롱 이중주 음반)
첼리아 린데(guitar)
조르주 미할라셰(zimbalon)

각각 집시 음악의 양대 거점인 스페인과 동유럽을 대표하는 악기들인 기타와 침발롱의 독특한 이중주를 담은 음반. 세고비아의 애제자였던 스웨덴 출신의 기타리스트 첼리아 린데와 루마니아 출신의 집시 음악가 조르주 미할라셰가 집시음악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창작곡들과 함께 영국 민요 'Greensleeves', 영화 'Harry Lime'의 테마, 터키 민속음악에서 모티브를 얻은 'Koynbaba' 등의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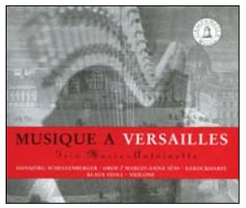
Campanella

www.campanella-musica.com

Campanella는 베를린 필의 수석 오보이스트를 역임했던 정상급 연주자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가 설립한 실내악 전문 레이블로 셸렌베르거 본인을 비롯하여, 마르기트 안나 쥐스, 클라우스 슈톨, 루드비히 크반트, 라이너 쿠스마울 등의 전현직 베를린 필 수석들을 중심으로 한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실내악 음반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레이블입니다. 이제 아울로스 미디어를 통해서 Campanella의 명반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C130076
농부들의 음악
(하프와 더블베이스로 연주한 모차르트의 선율들)
마르기트 안나 쥐스(harp)
클라우스 슈톨(db)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들은 연주회장의 귀족들 뿐만 아니라 저자거리 민중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었다. 본 음반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타이틀 그대로 민중들의 소박한 음악으로 변모한 모차르트 음악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모차르트의 여러 춤곡들과 '돈조반니',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등에서 간추린 귀에 익은 선율들이 민속하프와 더블베이스 이중주의 소박한 사운드로 연주되었다.



C130090
베르사이유의 음악
(마레, 들라랑드, 쿠프랭, 라모)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ob)
마르기트 안나 쥐스(harp)
클라우스 슈톨(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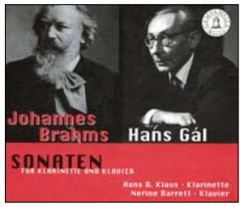
마레의 '라 폴리아'와 모음곡 d단조, 라모의 여러 무대음악들에서 발췌한 '탕부랭', '르 소바주', '리구동' 등을 비롯한 개성적인 춤곡들, 들라랑드의 성탄을 위한 작품인 '노엘 심포니', '시실리엥' 악장이 돋보이는 프랑소와 쿠프랭의 콩세르 G장조 등 부르봉 왕조 시절 대표작곡가들의 작품을 오보에, 하프, 비올로네의 삼중주로 연주한 음반. 전직 베를린 필의 수석들인 세 연주자들의 조화로운 앙상블이 돋보인다.

C130014
클라라 & 로베르트 슈만: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ob)
롤프 쾨넨(pf)

로베르트와 클라라 슈만 부부의 로맨틱한 실내악 소품들을 모았다. 클라리넷 또는 첼로로 즐겨 연주되는 로베르트의 3개의 로망스와 3개의 환상곡, 그리고 아다지오와 알레그로를 오보에의 고혹적인 비음으로 담았으며, 클라라의 3개의 로망스 역시 섬세한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피아노 곡인 3개의 로망스 Op.28도 함께 수록되었으며, 오보에와 피아노 이중주로 연주된 로베르트의 가곡들도 신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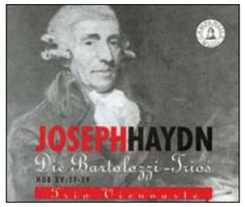
C130151
로만티셰
(닐센, 라이넥케, 크룩하르트 등의 낭만 실내악 소품들)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ob)
제라르 코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hrn)
바딤 클라드코프(pf)

19세기 오보에와 피아노 또는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로맨틱한 실내악 소품들을 모은 음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닐센의 로망스와 유모레스크, 라이넥케의 두 작품인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노투르노와 오보에, 호른,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레나우의 '갈대의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클룩하르트의 오보에,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헤르초겐베르거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전설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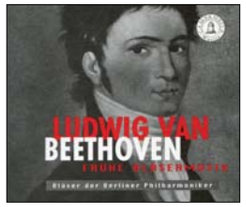
C130052
브람스: 클라리넷소나타 1,2번
갈: 클라리넷소나타
한스 D 클라우스(cl)/ 네린 바레트(pf)

만년의 브람스가 클라리넷 연주자 리하르트 뮐펠트의 연주에 감명을 받아 완성한 클라리넷을 위한 일련의 실내악들 중에서 가장 최후에 완성된 것이 바로 Op.120의 두 소나타다. 한스 갈은 나치를 피해 영국에서 생을 마감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로 동시대에 비해 보수적인 음악스타일을 보여줬다. 그의 클라리넷소나타 역시 브람스 소나타들의 영향을 짙게 드러내는 로맨틱한 성향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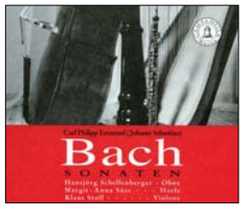
C130106
하이든:
피아노트리오 Hob. XV:27-29
트리오 비엔날레

하이든의 3개의 피아노트리오 hob.XV 27-29는 두 번째 런던 방문 직후에 완성되어 1797년에 출판된 작품들로 당대의 유명한 여성 피아니스트 테레제 얀센에게 헌정되었다. 대 작곡가의 원숙기의 작품들인 만큼 고전 실내악 특유의 단아한 정형미와 작곡가의 유쾌발랄한 악상이 조화를 이룬 걸작들이다. 빈 출신의 세 여성주자들로 구성된 트리오 비엔날레의 정갈한 연주가 작품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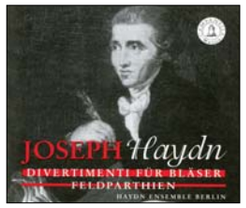
C130083
베토벤:
관악기를 위한 실내악
베를린 필하모닉 관악주자들

오보에의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 잉글리시호른의 도미니크 볼렌베버, 호른의 게오르크 셰렉켄베르거, 바순의 다니엘레 다미아노 등 베를린 필 전현직 관악 주자들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관악기를 위한 실내악 작품들. 2대의 오보에와 잉글리시호른을 위한 삼중주와 '우리 손을 잡고' 변주곡,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이중주, 오보에와 바순을 위한 이중주, 3대의 호른과 오보에, 바순을 위한 오중주를 수록



C130021
JS 바흐, CPE 바흐:
트리오소나타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ob)/ 마르기트 안나 쥐스(harp)/ 클라우스 슈톨(db)

오보에와 하프, 그리고 비올로네 삼중주로 연주한 바흐 부자의 트리오소나타들. JS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BWV1031과 1033, 바이올린소나타 BWV1020, 그리고 CPE 바흐의 솔로 오보에와 솔로 하프를 위한 소나타, 그리고 오보에와 통주저음 위한 소나타 Wq.135를 녹음 당시 베를린 필의 오보에, 하프, 더블베이스 수석들이었던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 마르기트 안나 쥐스, 클라우스 슈톨의 연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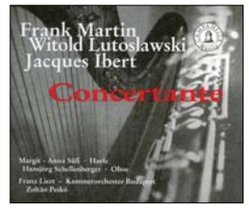


C130069
하이든:
관악앙상블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하이든 앙상블 베를린

관악앙상블을 위한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들은 파르티타, 하모니무지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본 음반에는 오보에, 호른, 바순 각 2대씩으로 편성된 관악 6중주를 위한 다섯 작품과 클라리넷과 호른 각 2대를 위한 C장조의 디베르티멘토를 함께 수록하였다.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 게오르크 슈렉켄베르거, 다니엘레 다미아노 등의 베를린 필 관악 수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하이든 앙상블 베를린의 연주.

C130168
클룩하르트, 라이하, 칼리보다, 라흐너: 오보에협주곡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ob, cond)/ 스위스 이탈리아어방송 오케스트라

'오보에는 바로크 이후 지금까지 오케스트라의 핵심악기로 군림해왔지만,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은 모차르트 이후 특별한 작품이 나오지 못했다. 본 음반에는 라이하의 두 오보에협주곡, 라흐너의 오보에협주곡, 칼리보다의 오보에와 관현악을 위한 디베르티스망, 클루가르트의 오보에 콘체르티노 등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낭만시대 오보에협주곡들의 숨겨진 매력이 가득 담겨 있다.



C130045
마르탱, 이베르, 루토스와브스키: 콘체르탄테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ob)/ 마르기트 안나 쥐스(harp)/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수록곡들은 모두 바로크시대의 콘체르토 그로소와 고전시대의 콘체르탄테 양식을 계승하였다. 이베르의 콘체르탄테는 독주 오보에와 더블베이스를 제외한 현 파트의 각 리더들이 솔로 그룹을 담당하며, 루토스와프스키의 협주곡은 오보에와 하프 두 대의 악기가 독주악기로 활약한다. 마르탱의 작품은 오보에와 하프, 그리고 다섯 현악기가 연주하는 '세기리아', '솔레다드', '룸바'로 구성되었다.

C130038
브리튼:
오보에를 위한 작품들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ob)/ 마르기트 안나 쥐스(harp)/ 베를린 필 단원들

20세기 영국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작품들을 담았다. 오보에 사중주를 위한 환상곡,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메뚜기와 말벌을 소재로 한 2개의 벌레 소품, 그리스 신화의 여섯 캐릭터를 오보에 독주로 표현한 오비드에 의한 여섯 메타모르포시스, 하프 솔로를 위한 모음곡, 플루트와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제미니 변주곡 등을 수록.

C130137
모차르트:
오르간작품(관악합주 편곡)
쇤베르크: 관악오중주
앙상블 빈 베를린

2002년에 발매되었던 이 음반은 베를린 필과 빈 필의 수석관악주자들이 합심하여 결성한 앙상블 빈 베를린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한다. 빈 필의 수석 플루티스트와 클라리네티스트인 볼프강 슐츠와 노베르트 태우블, 베를린 필의 수석 오보이시트 출신의 한스외르크 셸렌베르거와 현 수석 호르니스트 슈테판 도르, 그리고 빈 국립음악원 교수인 밀란 투르코비치가 관악앙상블의 묘미를 들려준다. 쇤베르크의 관악오중주와 관악오중주로 편곡한 모차르트의 오르간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C130144
코다이, 리게티, 쿠르탁, 로사: 무반주 첼로 작품집
루드비히 크반트(vc)/ 마르쿠스 벡커(pf)

1993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니의 첼로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루드비히 크반트는 이 오케스트라의 각종 영상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연주자다. 코다이의 유명한 무반주 첼로 소나타 Op.8을 비롯하여 리게티, 쿠르탁, 로사의 무반주 첼로 작품들과 코다이의 첼로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Op.4를 수록한 본 음반은 솔리스트로서의 이 연주자의 탁월한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C130175
슈포어, JS 바흐, 하이든, 힌데미트: 하프 작품집
마르기트 안나 쥐스(harp)

마르기트 안나 쥐스는 NDR 심포니와 밤베르크 심포니, 그리고 베를린 필의 하프 수석을 차례로 거친 뒤, 현재 프리랜서 솔리스트로 활약 중인 독일을 대표하는 하프 연주자다. 독일 함부르크 음악원 작곡가 교수인 페터 함멜의 하프 소품집을 비롯하여, 슈포어와 힌데미트의 하프 독주를 위한 작품들과 바흐의 류트 모음곡 BWV996, 피아노를 위한 하이든의 변주곡 C장조를 하프로 편곡 연주하였다.

M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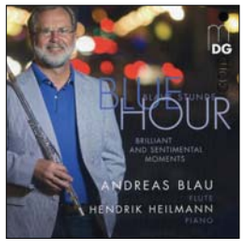
www.mdg.de

337 1200-2 **[11 for 4]**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집
로만 코프만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집이 경제적인 Box 포맷으로 출시되었다. MDG가 자랑하는 뛰어난 레코딩과 코프만의 개성적인 해석이 결합된 이 전집은 아래와 같은 유수의 클래식 전문지들을 통해 호평을 받았다. 교향곡 10번(크레센도 추천반), 교향곡 5,9번(루이스터 10점), 교향곡 7번(펭귄가이드***), 교향곡 1,6번(루이스터 10점), 교향곡 8번(뛰어난 연주와 녹음: 팡파르)

330 1616-2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라벨: 볼레로
오네거: 퍼시픽231
피아노 듀오 트렌크너-슈파이델

레코드가 없던 시절 관현악 작품에 대한 피아노편곡은 가정용 음악회를 비롯한 소규모 공연 등에서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본 음반은 음악사 사상 가장 뛰어난 관현악법의 대가들로 꼽히는 세 작곡가들의 대표 관현악곡들을 작곡가 자신들의 피아노 연탄을 위한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유명한 작품들이지만, 그 내면에 가려있던 유려한 선율의 흐름이 피아노 편곡을 통해 한결 또렷하게 드러난다.



308 1659-2
Blue Hour (안드레아스 블라우가 연주하는 감상적인 소품들)
안드레아스 블라우(fl)
헨드릭 하일만(pf)

20세의 나이로 플루트 수석이 된 이래 40년이 넘도록 베를린 필을 지켜오고 있는 최고의 플루티스트 안드레아스 블라우가 선사하는 매력만점의 솔로 리사이틀 음반.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힌도의 노래, 가데의 탱고 '질투',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몬티의 차르다슈, 토셀리의 세레나데, 로타의 영화 '대부'의 테마, 영국민요 그린슬리브스 등등 귀에 익은 선율이 비단결과 같은 플루트 사운드를 통해 펼쳐진다.

304 1647-2
슈만:
바이올린소나타 Op.121, 105, WoO 2
앙상블 빌라 무지카 (니콜라스 추마첸코(vn)/ 칼레 란달루(pf))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앙상블 빌라 무지카의 리더이자 프라이부르크 음악원 교수인 니콜라스 추마첸코와 1985년 ARD 콩쿠르 우승자 칼레 란달루가 완성한 슈만의 바이올린소나타 전곡집. 페르디난트 다비트를 위해 완성한 소나타 1, 2번, 그리고 제자들인 디트리히, 브람스와의 공동 창작물이었던 FAE 소나타를 위해 완성한 두 악장에 새롭게 두 개의 악장을 추가해서 완성한 소나타 3번을 모두 수록하였다.

603 1644-2
크반츠, 르클레르, 블라베, CPE 바흐 등의 플루트와 리코더를 위한 작품들
라 리코르단차

베를린 국립 도서관에서 최근 발견된 크반츠의 플루트협주곡 D 장조가 최초로 녹음되었다. 본 작품은 이탈리아의 열정적인 기질과 프랑스의 우아한 스타일을 이상적으로 접목했던 이 작곡가의 장점을 유감 없이 드러낸다. 본 음반에는 크반츠에 영향을 주었던 동시대 작곡가들인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블라베, 독일의 CPE 바흐와 그라운의 플루트 또는 리코더를 위한 소나타와 협주곡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304 1618-2
폰키엘리:
실내악 작품집 (관악9중주를 위한 시간의 춤 외)
앙상블 빌라 무지카

Gramophone Critics Choice 2010, Classicstoday 10/10"" 연말의 즐거운 분위기를 위한 음악을 위한 이들에게 '시간의 춤'의 뛰어난 편곡을 비롯한 폰키엘리의 소박하가도 꾸밈없으며, 뛰어난 선율미의 실내악 작품들을 담은 이 음반이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Gramophone Jed Distler2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오보에를 위한 카프리치오, 관악사중주 외

307 1652-2
클루가르트:
피아노오중주, 현악오중주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올가 골레이(pf)
율리안 슈텍켈(vc)

라이프치히 쿼텟이 발굴한 숨겨진 독일 낭만 실내악의 걸작들. 아우구스트 클루가르트는 지휘자로는 리스트와 바그너에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작곡가로는 슈만이나 브람스의 보다 보수적인 스타일을 지향하였다. 피아노협주곡에 버금가는 당당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의 피아노오중주는 슈만의 피아노오중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현악오중주는 브람스의 몇몇 걸작들을 연상케 하는 헝가리적인 정취가 인상적이다.

614 1553-2
파헬벨:
건반작품집 2집
프란츠 람믈(org, ce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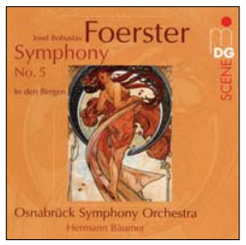
남독일의 파헬벨은 북독일의 북스테후데와 더불어 바흐에 앞서서 독일 오르간 음악을 양분했던 위대한 이름이다. 프란츠 라믈은 프라이부르크 베드로교회의 유명한 질버만 오르간을 사용하여 코랄 'Ach was soll ich Sunder machen'에 의한 변주곡과 7성부 마그니피카트, 두 편의 코랄 프렐류드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오르간 작품을 녹음하였고,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F장조와 두 편의 소품도 함께 수록되었다.

309 1617-2
Giro d' Italia
(갈루피, 비발디, 로카텔리, 삼마르티니, 만치니 등의 작품들)
무지카 알타 리파

'Giro D' Italia'는 이탈리아 전역을 누비는 자전거 경주를 말한다. 본 음반은 18세기 이탈리아 각지에서 활동하던 여섯 작곡가들의 기교적이고도 아름다운 선율미를 자랑하는 협주곡과 소나타를 수록하였다. 보케리니의 첼로협주곡 3번, 비발디의 리코더협주곡 RV434 등의 유명작 외에도 갈루피의 우아한 삼중협주곡, 로카텔리의 기교적인 바이올린소나타 Op.8-8, 푸가 악장이 인상적인 만치니의 소나타 등을 수록하였다.

602 1656-2 **[2 for 1.5]**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야〉
바라인스키, 고트발트, 트로슈트, 바우어/ 크리스토프 슈페링/ 다스 노이에 오케스트라

'엘리야'는 멘델스존을 대표하는 종교합창곡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천지창조'와 더불어 오라토리오 장르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본 음반은 2009년 11월 에센 필하모니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당대연주계의 거물 크리스토프 슈페링과 다스 노이에 오케스트라의 다이내믹한 연주와 신예 바리톤 토마스 바우어를 필두로한 실력파 솔로이스트들의 열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632 1493-2
포에르스터:
교향곡 5번, 교향시 '산맥 속에서'
헤르만 배우머
오즈나브뤽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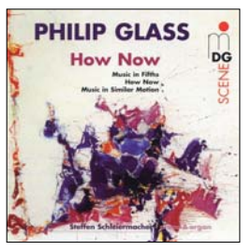
포에르스터의 교향곡 1,2번으로 2009년 ECHO KLASSIK을 수상했던 헤르만 배우머가 교향곡 5번과 초기 주요 관현악곡인 '산맥 속에서'로 이 시리즈를 완결하였다. 교향곡 5번은 16세의 나이로 요절한 아들을 기리는 관현악 레퀴엠의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단장의 슬픔이 전곡을 걸쳐 절절히 표현된 작품이다. 교향시 '산맥 속에서'는 산골의 소박한 축제와 산악지대의 절경을 세련된 관현악법으로 표현한 표제음악이다.

341 1628-2
그라우프너:
우베르튀르 GWV447, 소나타 GWV707, 711 외
노바 스트라바간자

2003년과 2005년 ECHO KLASSIK을 연거푸 수상했던 1,2집에 이어서 그라우프너의 관현악 작품을 담은 세 번째 음반이 출시되었다. 뛰어난 고건반악기 연주자인 지그베르트 람페가 이끄는 시대악기 앙상블 노바 스트라바간차의 아담하고도 단정한 연주로 바흐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플루트소나타 2편과 프랑스 풍 우베르튀르, 그리고 독특한 양식의 트리오소나타인 Canon all' unisono를 수록하였다.

618 1626-2
포레:
녹턴 전곡
슈테판 이르머(pf)

포레는 낭만시대를 장식했던 수많은 작곡가들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도 우아한 감성의 소유자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필드와 쇼팽에 의해 매력적인 피아노 장르로 정착했던 녹턴은 포레 특유의 이러한 장점들이 극대화되기에 최적인 영역이다. 탈베르크의 피아노작품집으로 CHOC상을 수상했던 독일이 자랑하는 학구파 피아니스트 슈테판 이르머의 감각적인 연주로 포레의 숨겨진 걸작들을 만나보시라.



613 1600-2
필립 글래스:
피아노 또는 오르간을 위한 작품들
슈테펀 슐라이어마허(org, pf)/ 베른트 E 겐겔바흐(sound design)

무한이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의 선율과 리듬으로 대변되는 필립 글래스의 미니멀 음악은 단순한 반복 속의 미묘한 변화상을 통해 감상자들의 감성을 부지불식간에 잠식해들어간다. 그의 초기 피아노 걸작인 1968년도 작품 How Now를 현대음악 스페셜리스트인 슈테펀 슐라이어마허의 정교한 연주로 담았다. 함께 수록된 오르간을 위한 두 작품은 작품들의 창작 시점인 1960년대에 제작된 전기오르간으로 연주하였다.

333 0674-2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슈만 피아노 반주 버전)
벤야민 슈미트(vn)
리자 스미르노바(pf)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치오에 피아노 반주를 덧붙인 슈만의 편곡은 높은 완성도와 두 악기간의 자연스러운 조화로 최근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벤자민 슈미드의 명인기와 이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스미르노바의 감성적인 반주는 이 편곡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접근 중에 단연 최고라 할만큼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 여기에 MDG 특유의 공간감의 매력이 십분 발휘되는 음반이다.

308 0301-2
플루트를 위하여(17세기 이탈리아 리코더 작품들)
퀼른 가나시 콘소트

MD&G의 초기 레코딩 중 연주와 녹음 양면 모두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본 음반이 새로운 리마스터링을 거쳐서 재발매 되었다. 음반에는 17세기 북이탈리아 일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리코더를 위한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랏소의 샹송, 프레소코발디와 메룰라의 칸초나, 소나타 양식의 선구자격 작품들인 폰타나와 투리니의 소나타들 등을 리코더의 청명한 사운드로 만난다.

940 1646-6 **[Hybrid-SACD]**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14, 15, 21번
크리슈티안 차하리아스(cond, pf)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

Stereoplay 9/9, Klangtipp, Classicstoday 10/10학구파 피아니스트 크리슈티안 차하리아스가 진행 중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시리즈의 6번째 음반, 영화 '엘비라마디간'에 삽입된 사랑스런 2악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협주곡 21번과 사냥음악의 흥겨움을 접목한 15번, 현 파트와 독주 피아노가 주고 받는 화사한 선율미가 매력적인 14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943 1622-6 **[Hybrid-SACD]**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30-32번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1901년 제작 슈타인웨이 피아노)

러시아 출신의 노거장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가 1901년에 제작된 슈타인웨이 피아노로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소나타들을 연주하였다. 옛 악기의 고아한 사운드와 레온스카야의 유유자적한 연주가 만들어내는 멋진 시너지 효과를 놓치지 마시라""악기와 작곡가, 연주가, MDG의 여유로운 사운드가 교감을 이룬 음반. 레온스카야는 이 음반에서 자신의 가장 감동적이 연주를 들려준다. "Gramophone Jed Distler"

910 1650-6 **[Hybrid-SACD]**
클래시카 베네수엘라
파비올라 호세(vo)
아네테 말부르크(fl)
니르세 곤잘레스(guitar) 외

'Classica Cubana'와 'Classica Argentina'에 이어 'Classica Venezolana'가 등장하였다. 격정적인 춤곡인 호로포와 여기에 빈 왈츠를 접목한 라우로의 기타 작품들, 그리고 5/8박자의 독특한 리듬형의 메렝게 등 베네수엘라의 개성적인 음악들을 이 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월드 아티스트들인 니르세 곤살레스와 헤수스 콘살레스 브리토, 그리고 시리즈의 호스티스인 플루티스트 아네테 마이부르크의 감각적인 연주로 담았다.

937 1631-6 **[Hybrid-SACD]**
슈미트:
교향곡 4번, 노트르담 간주곡
슈테판 블루니어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독일 후기낭만음악의 대미를 장식했던 주요 작곡가인 프란츠 슈미트의 대표 관현악 걸작을 동시에 만난다. 2010년 1월 본 베토벤홀에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작곡가의 마지막 교향곡과 오페라 '노트르담' 중 유명한 간주곡이 함께 연주되었다. 교향곡 4번은 자신의 딸의 죽음을 기리는 레퀴엠 성격의 작품이었지만, 아다지오 파트의 작곡 도중 슈미트는 자신의 머지 않은 죽음 또한 예감했다고 한다.

901 1614-6 **[Hybrid-SACD]**
마르탱:
'폭풍' 모음곡, 심포니 콘체르탄테. 6개의 독백
토마스 올리에만스(br)/ 스티븐 슬로안/ 스타방거 심포니 오케스트라

Klassik.com *****MDG가 진행중인 스위스 작곡가 프랭크 마르탱의 관현악 작품 시리즈의 4번째 음반.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기초한 오페라 '폭풍'에서 간추린 바리톤과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과 호프만슈탈의 텍스트에 곡을 붙인 바리톤과 관현악을 위한 'Jedermann'으로부터의 6개의 독백 파울 자허를 위한 관현악 걸작인 심포니 콘체르탄테를 수록.

904 1653-6 **[Hybrid-SACD]**
멘델스존:
6개의 전주곡과 푸가, 한여름밤의 꿈 편곡 외
이미주 & 클라우스 헬비히(pf)

슈만과 생상 음반으로 호평을 받았던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 이미주가 멘델스존에 도전하였다. 6개의 프렐류드와 푸가는 바흐 음악에 대한 이 작곡가의 오마주 성격의 작품으로, 이른 나이에도 대위법에 정통했던 그의 천재적 음악성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작품들이다. 작곡가 자신이 편곡한 '한여름밤의 꿈' 서곡을 비롯한 4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들은 동료 교수인 클라우스 헬비히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901 1643-6 **[Hybrid-SACD]**
라인베르거:
오르간협주곡 1,2번,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소품들
슈테판 요하네스 블라이허(org)
더글라스 보이드/ 무지크콜레기움 빈터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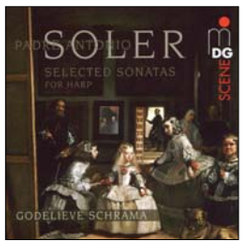
유럽의 소국 리히텐슈타인 출신인 라인베르거는 낭만시대 독일 오르간 악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작곡가다. 그는 걸출한 오르간 독주곡들 외에도 헨델 이후 유명무실해졌던 오르간협주곡의 전통을 계승했던 장본인이다. 1888년에 완성된 빈터투르 교회 오르간 의 화려한 사운드와 관현악의 흥미진진한 정면대결을 담은 두 편의 오르간협주곡 외에도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3편의 사랑스런 소품도 함께 수록되었다.

905 1629-6 **[Hybrid-SACD]**
빌라-로보스:
기타 작품 전집
프랑크 분가르텐(guitar)

20세기 라틴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라질의 빌라로보스는 비록 소수지만 매력만점의 기타곡들을 후대에 남겼다. 가장 앞서 완성된 Choro 1번은 삼바로 대표되는 이 나라의 향토음악의 영향을 적극 받아들인 작품이며, 피라유학 시절의 12개의 에튀드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이 배어있는 작품이다. 브라질 전통음악과 바흐에 대한 오마주인 5개의 전주곡과 브라질의 대중가요에 기초한 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910 1625-6 **[Hybrid-SACD]**
Flying Saxophone Circus
밀란 투르코비치
젤머 색스하모닉

12명의 일급 색소폰 솔로이스츠들로 구성된 젤머 색스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흥겨운 세계 음악기행. 각종 영화 및 CF 배경음악으로 너무나 유명해진 '왈츠'를 담고 있는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2번과 드보르작의 슬라브춤곡 발췌, 브라질의 이국적인 정취를 담은 미요의 독특한 모음곡 '스카라무슈', '섬머타임', 'I got rhythm 등의 거쉰의 친근한 선율들을 엮은 '아메리칸 스토리' 등을 색소폰의 개성적인 사운드로 만난다.



903 1627-6 **[Hybrid-SACD]**
솔레르:
건반소나타 (하프를 위한 편곡)
고델리에베 슈라마(harp)

안토니오 솔레르는 가톨릭 사제로 재직하던 틈틈이 작곡에 힘써서 양과 질 양쪽 모두에서 스카를라티의 위업에 버금가는 건반작품들을 완성하였다. 그의 소나타들에는 카탈로냐의 민속음악과 북아프리카 유래의 이슬람 양식, 그리고 스카를라티에 의해 도입되었던 이탈리아의 바로크 스타일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방대한 건반소나타들 중에서 대표적인 12편을 하프의 청명한 울림으로 만난다.

947 1651-6 **[Hybrid-SACD]**
In Dulci Jubilo
(로맨틱 성탄 합창곡집)
외르크 슈트라우베
노르도이처 피구랄코르

풀랑의 합창작품집으로 2010년 ECHO KLASSIK을 수상했던 독일을 대표하는 정상급 합창단인 노르도이치 피구랄코르가 낭만시대 독일 작곡가들의 크리스마스를 위한 아름다운 아카펠라 합창곡들을 선보인다. 멘델스존과 레거, 그리고 베르크와 같은 유명 작곡가들 외에도 실허, 리델, 헤르너 등의 합창음악 전문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합창곡들이 겨울밤의 고요한 정취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906 1619-6 **[2 for 1.5] [Hybrid-SACD]**
JS 바흐:
라이프치히 코랄
크레이그 F 험버(org)

흔히 라이프치히 코랄로 불리는 18개의 코랄은 바흐가 인생 말년에 정리한 작품집으로 바이마르 시대의 초기작에서부터 최후기의 작품까지 총망라된 바흐 오르간 음악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작품집이다. 프라이부르크 베드로교회는 2차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나, 내부의 질버만 오르간은 기적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 독일이 자랑하는 이 역사적인 명기가 바흐의 이 걸작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49
브루크너:
교향곡 6번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은 장대한 규모의 5번과 위대한 후기 3대 걸작 교향곡들의 위용에 가려진 작품이지만, 작곡가의 교향곡들 중에서는 이례적인 경쾌한 율동감과 우아한 분위기를 머금은 매력적인 작품이다. 본 신보는 2009년 11월 4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는 휴스턴 심포니와의 녹음에 비해 한결 안정되고 중후한 해석을 보여준다.

LPO-0050
바흐: 칸타타 BWV63
본 윌리엄스: 퍼스트 노웰 외
밀네, 도노세, 스테이플스, 몰트맨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런던 필과 합창단

2009년 12월 5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와 런던 필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실황. 크리스마스를 위한 바흐의 화려한 칸타타 BWV63 '크리스천이여 이 날을 기억하라'와 소프라노와 바리톤 독창 그리고 5성부 합창단을 위한 멘델스존의 칸타타 풍의 작품 '높은 하늘에서 내가 왔도다',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대표 종교합창곡인 'First Nowell' 등이 성탄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Aulos Media

www.aulosmedia.co.kr

AMC2-113
마이클 호페:
태피스트리

색실 멜로디로 수놓은 알록달록한 마음의 풍경
최정상 뉴에이지 음악가의 주체할 수 없는 시적 감성

뉴에이지 음악의 중요한 본질이자 장점은 현대인들에게 무한한 시적,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눈이 스르르 감기는 매혹적인 멜로디를 샘물처럼 끌어내는 우리 시대 최고의 뉴에이지 뮤지션 마이클 호페가 정교한 시적 감수성에 의존해 쓴 주옥같은 작품들이다. 뉴에이지 음악과 낭만적 시편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시와 음악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벽에 걸린 태피스트리처럼 풍부한 색채를 가진 수려한 음악들이 조각조각 이어져 있다.

AMC2-114
떠돌이별 임의진의 와인여행

〈커피 여행〉에 이어 〈와인 여행〉.
월드뮤직 스테디셀러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 떠돌이별 임의진이 직접 고른 '세상의 모든 와인 노래'.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와인 산지, 캘리포니아와 북미, 칠레와 남미 전역, 호주로까지 이어지는 '와인 로드'에서 캐낸 18곡의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와인 노래들. 여행자들은 이 노래를 듣고 취하라! 이 노래를 듣고 사랑하라!

드니 성호 Denis Sungho Janssens가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아름다운 기타 작품들

한국계 벨기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얀센스는 8세에 기타를 시작, 14세에 벨기에 'Jeunes Talents (Young Talent)' 콩쿨에서 1위에 입상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파리 고등사범음악원 (Ecole Normale de la Musique de Paris Alfred Cortot)에서 Alberto Ponce에게 배우고, 벨기에 몽스 왕립음악원 (Conservatoire Royal de Musique de Mons)에서 Odair Assad와 Guy Van Wass로부터 가르침을,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 (Conservatoire Royal de Musique de Bruxelles)에서 Odair Assad와 함께 Sergio Assad에게 배웠다. Odair & Sergio Assad는 세계적인 형제 기타 듀오 (Duo Assad)로 유명한 거장 기타리스트이다.

독일 Koelner Stadt Anzeiger로부터 "걸출한 연주", 프랑스 Les Cahiers de la Guitare로부터 "영감을 주는 연주"라는 찬사를 받은 드니 성호는 2004년 유럽 콘서트홀 협회 (ECHO)로부터 "떠오르는 스타 (rising star)"로 선정되어 2005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를 가졌다. 또한,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빈 뮤지크페라인, 짤스부르크 모짜르테움, 버밍엄 심포니홀, 스톡홀름 콘서트홀, 아테네 메가론, 브뤼셀 팔레 데 보자르, 파리 시떼 드 라 뮈지끄, 콜른 필하모니 등 세계적인 명성의 무대에서 연주했고, Musik Triennale in Koeln 등 여러 음악 축제에서 Esemble Intercontemporain, Oxalys 등 유럽 유수의 앙상블과 협연했다.

쿠바 출신 작곡가 겸 기타 거장 레오브라우어의 작품(Concerto Elegiaco, Tres Danzas, Quintet / Chapelle Musicale de Tournai, Quatuor Alfama / 2007 Fuge Libera)을 녹음한 드니 성호의 음반은 독일의 클래식 음악지 (KLASSIK)로부터 "역사에 남을 연주"라는 평을 받았다. 그 외 드니 성호가 녹음한 음반으로 기타리스트 Boris Gaquere와 함께 연주한 듀오 앨범 (Piazzolla, Assad, Gaquere), 드니 성호의 솔로 앨범 (Bach, Ponce, Turina Ginastera, Assad), 그리고 Soledad Ensemble과 협연한 음반 (Piazzolla)이 있으며, 2009년 1월 Tarrega, Villa-lobos, Piazzolla, Assad, Dyens, Gismonti, Mompou 등의 소품으로 구성한 한국 첫 라이센스 앨범 'Remembrance'를 발매했다.

벨기에의 문화재단 (Fondation Belge de la vocation)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드니 성호는 젊고 유능한 현대음악 작곡가 Jean-Michel Gillard, Santiago Abadia, Jean-Marie Rens등의 작품을 초연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연주활동을 하는 드니 성호는 Thomas Humphrey 기타를 연주한다.

"드니 성호는 콜른 필하모닉과의 협연에서 그의 천재성을 잘 보여줬다.
그의 손가락들은 음악과 함께 신들린 듯이 날아다녔다."
Koelner Stadt Anzeiger (독일)

"드니 성호의 연주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며 조화롭다."
Les Cahiers de la guitare (프랑스)

낙소스에서 발매된 드니 성호 앨범

Blu-ray Disc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BD 7074D

케네스 맥밀란, 발레 세 편

맥밀란의 단막 세 편, 그리고 로열 발레의 한국인 발레리나 최유희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로열 발레의 상징적 안무가로서 드라마 발레(연극적인 스타일의 발레)의 선구자적 존재이다. 그러나 전막 발레 외에도 짬짬이 단막 작품들을 남겼으니, 그 보석 같은 세 편이 이 한 장에 실렸다. 〈엘리트 신코페이션〉은 온스테이지 밴드가 연주하는 래그타임 음악과 기기묘묘한 의상이 결합한 상큼한 가작이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목매에 죽었다는 전설에서 따온 〈유다 나무〉는 맥밀란의 마지막 작품으로 현대의 폐차장을 배경으로 어둡고 섹슈얼한 드라마가 펼쳐진다. 〈콘체르토〉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이용한 발란신 스타일의 신고전주의 작품이다. 특히 〈콘체르토〉에는 로열 발레의 주역급으로 성장한 재일교포 발레리나 최유희가 1악장과 3악장에서 리딩 롤을 멋지게 추고 있다.

OpusArte OABD 7068D

모차르트: 황제 티토의 자비

크리스토프 프레기디앙과 수잔 그레이엄이 들려주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세리아

모차르트의 마지막 해였던 1791년 보헤미아의 레오폴드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되었던 마지막 오페라 세리아다. 지극히 교훈적인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과 같은 오페라에 비해 상대적인 인기가 부족하나, 클라리넷을 적극 활용한 충실한 기악 파트와 특유의 유려한 선율미로 가득한 주목할 작품임에 틀림없다. 로마 황제 티토(티투스: 재위 79-81년)와 관련된 일화를 다루었다. 오페라에서 티토는 자신을 살해하려고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인물로 그려지나, 수많은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성전을 페허로 만든 장본인인 그가 실재 그러한 관용을 베풀었을지는 의문이다. 본 DVD는 2005년 5-6월 파리 가르니에 궁에서 있었던 공연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가수 두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게 된다. 현존 가장 위대한 복음사가이자 바로크 및 고전 레퍼토리에서 최고의 성과를 쌓아온 테너 크리스트포 프레기디앙이 타이틀 롤을 맡았고, 최고의 성과를 쌓아온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디앙이 타이틀 롤을 맡았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국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미엄이 황제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물인 세스토를 노래하였다.

OpusArte OABD 7073D

차이코프스키: 체레비츠키 – 황후의 슬리퍼

브세볼로드 그리브노프(바쿨라)/ 라리사 디아드코바(솔로카)/ 블라디미르 마토린(추브)/
올가 구랴코바(옥산나) 외/ 알렉산더 폴리아니츠코/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

아름다운 노래와 화려한 발레가 곁들여진 차이코프스키의 숨겨진 보석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10여 편의 오페라 중에서 '에프게니 오네긴'과 '스페이드의 여왕' 정도만이 자주 공연되는 작품들이다. 하지만 2009년 11월 로얄 오페라에서의 공연을 담은 본 영상물은 나머지 비인기작들도 충분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들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문호 고골리의 '크리스마스이브'를 내용으로 하는 '체레비츠키'의 원형은 1874년에 완성한 오페라 '대장장이 바쿨라'다. 이 오페라는 엘레나 대공부인이 주관한 오페라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작곡가는 이 작품에 썩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1년이 지난 뒤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쳐서 마무리된 작품이 바로 '체레비츠키'다. 개정판 역시 초연 당시 호평을 받았지만, 작곡가의 사후에는 러시아 내에서조차 거의 잊혀진 작품이 되고 말았다. 연출가 프란체스카 잠벨로는 환상적인 무대미술과 화려한 발레를 곁들여 동화적인 내용의 이 오페라를 훌륭히 부활시켰다. 러시아 본토출신 가수들의 든든한 가창과 로얄 발레단 일급 무용수들의 매혹적인 춤사위는 작품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Blu-ray Disc

OpusArte OABD 7075D

푸치니: 서부의 아가씨

개척시대 서부 대신 할리우드 스타일을 취한 〈서부의 아가씨〉

푸치니는 이국취미에 관심이 많아서 〈나비부인〉, 〈투란도트〉를 작곡했다. 미국 서부시대도 유럽인의 눈에서는 별천지였으니 1910년 뉴욕에서 초연된 〈서부의 아가씨〉가 그 예다. 술집 여주인인 미니, 도적 두목임을 숨기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 딕 존슨, 연적인 보안관 잭 랜스의 삼각관계를 다룬다. 니콜라우스 렌호프 프로덕션은 이를 할리우드 풍으로 현대화했다. 특히 폐차장에서 처형의 위기에 놓인 딕 존슨을 구하러 미니가 나타나는 장면은 스펙터클과 유머가 한꺼번에 압도적으로 구현되어 멋진 볼거리를 선사한다. 최근 화제의 프로덕션을 연이어 기획하고 있는 네덜란드 오페라의 2009년 최신 실황이며,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애형 소프라노이자 바그너에 장기를 지닌 에바-마리아 웨스트브뤼크가 푸치니의 매력적인 타이틀 롤을 창조했다.

OpusArte OABD 7082D

R.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린다 왓슨(엘렉트라)/ 제인 헨셀(클리템네스트라)/ 마누엘라 우흘(크리소테미스)/ 르네 콜로(애기스트)
알베르트 도멘(오레스트)/ 크리슈티안 틸레만/ 뮌헨 필하모니커

적과 흑의 강렬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친모살해의 잔혹드라마

'엘렉트라'는 1909년 드레스덴에서 초연 당시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던 문제작이다. 딸에 의한 친모살해를 다룬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그리스 비극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의 내용이 우선 충격적이었으며, 이를 방대한 편성의 오케스트라의 격렬한 사운드로 표현한 슈트라우스의 음악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본 영상물은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유력한 계승자인 크리슈티안 틸레만이 지휘봉을 잡음으로서 화제가 되었던 2010년 초순 바덴-바덴의 축전극장에서의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사망했던 명연출가 헤르베르트 베르닉케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으로, 단순화된 무대 위로 흑과 적의 극명한 색채대비를 통해 엘렉트라의 불타는 복수심과 불안정한 심리변화과정이 강렬하게 표출된다. 린다 왓슨과 마누엘라 우흘은 각각 엘렉트라의 강인함과 크리소테미스의 유약함을 효과적으로 연기하였고, 그로테스크한 외모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제인 헨셀의 클리템네스트라와 왕년의 헬덴테너 르네 콜로가 열연한 애기스트도 각별하다.

OpusArte OABD 7078D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프란츠 하블라타(작스)/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발터)/ 미카엘 폴레(베크메서)/
미카엘라 카우네(에파)/ 아르투르 코른(포크너) 외/ 제바슈티안 바이글/ 바이로이트 페스티발

증조할아버지의 대작을 맘껏 비틀어 놓은 카타리나 바그너의 바이로이트 데뷔작

2008년의 '마이스터징거' 실황은 두 가지 면에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증손녀인 카타리나의 바이로이트 데뷔 프로덕션이라는 점과 더불어, 드레스리허설이 아닌 실제 관객들 앞에서 펼쳐진 공연실황을 수록한 최초의 영상물이라는 점이다. 카타리나는 독일문화의 우수성을 역설했던 증조할아버지의 이 대작을 맘껏 비틀어놓았다. 각각 타이프라이터를 두들기는 시인과 길거리 화가로 변신한 한스 작스와 발터의 모습도 놀랍지만, 바그너를 비롯한 독일 문화의 대표 예술가들이 우스꽝스러운 가면으로 등장하는 3막 5장의 서두나, 한스 작스의 마지막 사자후가 음산한 모노드라마로 변형된 피날레는 전통주의 바그네리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다. 하지만 이 희극오페라에 불필요하게 이식되었던 국수주의적 망령과 과도한 권위주의를 완벽하게 제거해낸 참신한 시도라는 호평도 만만치 않았다. 마지막 커튼이 내려진 후 각 진영을 대변하는 엄청난 야유와 환호의 맞대결까지도 이 영상물에 생생하게 수록되었다. 관객들로 가득 채워진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내부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Blu-ray Disc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3604

하이든: 달나라

베르나르드 리히터(에클리티코)/ 디트리히 헨셸(부오나페데)/ 비비카 쥬노(에르네스토)/
크리슈티나 란즈하머(클라리체)/ 마르쿠스 샤퍼(체코) 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빈 콘첸투스 무지쿠스

하이든 특유의 유쾌 발랄함으로 그려진 엉터리 달나라 여행기

하이든은 교향곡과 현악사중주의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오페라에서만큼은 후대의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그의 오페라 15편중에서 서너 편 정도는 작곡가 특유의 유쾌 발랄한 악상과 고전 오페라의 간결명료한 매력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수작들로 서서히 재평가되고 있다. 1777년에 작곡된 오페라 '달나라'(Il Mondo dell Luna)는 이후의 '성기사 오를란도', '아르미다'와 더불어 하이든의 대표오페라로 손꼽힌다. 결혼을 반대하는 연인의 완고한 아버지를 코믹하게 골탕 먹이는 엉터리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오페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SF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어서 더욱 흥미진진하다. 2009년 12월 테아터 안 더 빈에서 펼쳐졌던 본 공연은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와 아르농쿠르의 여든 번째 생일을 함께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토비아스 모레티의 현대적이고도 기발한 연출과 아르농쿠르의 활기찬 지휘, 그리고 베르나르드 리히터, 비비카 주노, 디트리히 헨셸 등의 뛰어난 가수들의 열연이 어우러진 고전 오페라의 성찬이다.

C-Major 703904

바그너 : 니벨룽의 반지

1. 라인의 황금 Das Rheingold: 상상 그 이상을 눈앞에 펼쳐놓는 21세기형 '링'의 장대한 서막

2. 바그너: 발퀴레 Die Walkure: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풍족케 만드는 이 시대 최고의 '발퀴레'

3. 바그너: 지크프리트 Siegfried: 현란한 3D 컴퓨터 그래픽 위로 펼쳐지는 영웅 지크프리트의 성장드라마

4. 바그너: 신들의 황혼 Gotterdammerung:
갖가지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총동원된 21세기 형 SF 링의 장대한 대단원

ARTHAUS MUSIK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530

브라운펠스: 새들

데시레 랑카토레(나이팅게일)/ 브렌든 조바노비치(희망)/ 제임스 존슨(절친)/ 마틴 갠트너(후투티)/
스테이시 탭픈(굴뚝새)/ 브라이언 멀리건(프로메테우스)/ 매튜 무어(독수리-제우스)/
제임스 콘론/ LA 오페라

'퇴폐음악'의 딱지를 떼로 다시금 걸작의 반열로 화려하게 부활한 오페라

제3제국 당시 유태계나 나치에 비판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은 '퇴폐음악'(Entartete Musik)이라는 딱지를 달고 연주가 금기시되었다. 한때 독일 낭만음악의 계승자로 각광받았던 발터 브라운펠스의 오페라 '새들'도 그 중 하나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에 기초한 이 오페라는 정치에 대한 풍자를 담은 흥미진진한 드라마에 바그너나 R. 슈트라우스를 연상케 하는 중후한 음악이 더해진 수작이다. 인간세계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길 원했던 이들의 백일몽과도 같은 이야기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연상케 하는 동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브라운펠스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 오페라의 공연 빈도도 점차 느는 추세다. 본 영상은 실력파 지휘자 제임스 콘론의 명쾌한 해석과 현존 최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한 사람인 데시레 랑카토레의 명인기가 돋보이는 2009년 LA 오페라의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OPUS ARTE OpusArte DVD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 1038D

케네스 맥밀란, 발레 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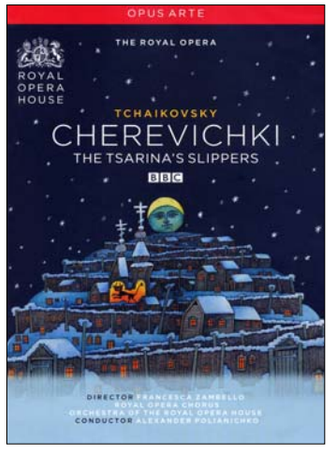
맥밀란의 단막 세 편, 그리고 로열 발레의 한국인 발레리나 최유희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로열 발레의 상징적 안무가로서 드라마 발레(연극적인 스타일의 발레)의 선구자적 존재이다. 그러나 전막 발레 외에도 짬짬이 단막 작품들을 남겼으니, 그 보석 같은 세 편이 이 한 장에 실렸다. 〈엘리트 신코페이션〉은 온스테이지 밴드가 연주하는 래그타임 음악과 기기묘묘한 의상이 결합한 상큼한 가작이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목매에 죽었다는 전설에서 따온 〈유다 나무〉는 맥밀란의 마지막 작품으로 현대의 폐차장을 배경으로 어둡고 섹슈얼한 드라마가 펼쳐진다. 〈콘체르토〉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이용한 발란신 스타일의 신고전주의 작품이다. 특히 〈콘체르토〉에는 로열 발레의 주역급으로 성장한 재일교포 발레리나 최유희가 1악장과 3악장에서 리딩 롤을 멋지게 추고 있다.

[보조자료]

○ 영국의 케네스 맥밀란은 존 크랑코와 더불어 전막 드라마 발레를 유행시킨 최대 공로자이다. 역사적 소재, 연극적인 줄거리, 강렬한 성적 표현에 몰두하였으며, 지나칠 정도의 실험정신으로 성공작과 졸작이 혼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마농〉,〈마이얼링〉이 그를 대표하는 드라마 발레인데, 특히 만년에 이르러 더욱 어두운 열정을 발산하는 스타일로 나아갔다. 〈유다 나무〉는 비록 35분짜리 단막 작품이지만 〈마이얼링〉 이상으로 음산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최유희는 2000년 파리 국제무용콩쿠르 은상, 2002년 스위스 로잔 발레콩쿠르 대상을 받고 2003년 영국 로열발레단에 입단했다. 2008년 퍼스트 솔리스트로 승급했고 2009년 〈라 바야데르〉를 시작으로 여러 작품에서 주역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뛰어난 테크니션이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을 발산하는 무용수이다. 그녀는 2010년 12월 국립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주역으로 처음으로 부모의 나라 무대에 선다.



Opus Arte DVD OA 1037D

차이코프스키: 체레비츠키 – 황후의 슬리퍼

브세볼로드 그리브노프(바쿨라)/ 라리사 디아드코바(솔로카)/ 블라디미르 마토린(추브)/
올가 구랴코바(옥산나) 외/ 알렉산더 폴리아니츠코/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

아름다운 노래와 화려한 발레가 곁들여진 차이코프스키의 숨겨진 보석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10여 편의 오페라 중에서 '에프게니 오네긴'과 '스페이드의 여왕' 정도만이 자주 공연되는 작품들이다. 하지만 2009년 11월 로얄 오페라에서의 공연을 담은 본 영상물은 나머지 비인기작들도 충분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들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문호 고골리의 '크리스마스이브'를 내용으로 하는 '체레비츠키'의 원형은 1874년에 완성한 오페라 '대장장이 바쿨라'다. 이 오페라는 엘레나 대공부인이 주관한 오페라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작곡가는 이 작품에 썩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1년이 지난 뒤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쳐서 마무리된 작품이 바로 '체레비츠키'다. 개정판 역시 초연 당시 호평을 받았지만, 작곡가의 사후에는 러시아 내에서조차 거의 잊혀진 작품이 되고 말았다. 연출가 프란체스카 잠벨로는 환상적인 무대미술과 화려한 발레를 곁들여 동화적인 내용의 이 오페라를 훌륭히 부활시켰다. 러시아 본토출신 가수들의 든든한 가창과 로얄 발레단 일급 무용수들의 매혹적인 춤사위는 작품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보조자료]

○ 오페라 '체레비츠키, 또는 황후의 슬리퍼'는 고골리의 '크리스마스이브'를 내용으로 한다. 원래 이를 오페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이는 작곡가 세로프였다. 이 작곡가를 아꼈던 엘레나 대공부인이 시인 포론스키에게 고골리의 원작을 토대로 '대장장이 바쿨라'의 리브레토를 부탁했지만, 세로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좌초하게 되었다. 이에 대공부인은 이 리브레토에 의한 오페라 콩쿠르를 여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차이코프스키가 여기에 응모하여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것이다.1876년 12월 6일의 초연무대는 성공적이었지만, 마감시간에 쫓겨 서둘러 완성했던 이 작품에 썩 만족하지 못했고, 11년이 지난 뒤 많은 수정을 거쳐서 '체레비츠키'라는 타이틀의 개정판을 내놓았다. 1887년 1월 31일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볼쇼이극장에서 개정판이 초연되었다.

○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부 솔로카는 악마와 작당하여 달을 훔치려고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교회 벽에다 악마를 조롱하는 그림을 그린 솔로카의 아들 바쿨라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악마는 폭풍을 일으켜 바쿨라가 연인 옥산나와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 폭풍의 와중에 바쿨라는 옥산나의 아버지를 폭행하게 되고, 화가 난 옥산나는 바쿨라를 쫓아버린다. 옥산나는 홧김에 바쿨라에게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황후의 슬리퍼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실의에 빠진 바쿨라는 자살을 기도하려다 악마의 도움을 받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궁으로 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황후의 슬리퍼를 입수한 바쿨라가 옥산나에게 돌아오고, 옥산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슬리퍼가 아니라 바쿨라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오페라가 마무리된다.

Opus Arte DVD OA 1039D

푸치니: 서부의 아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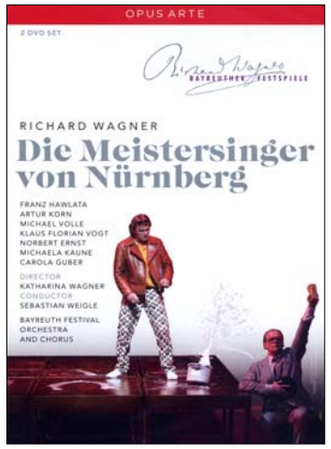
개척시대 서부 대신 할리우드 스타일을 취한 〈서부의 아가씨〉

푸치니는 이국취미에 관심이 많아서 〈나비부인〉, 〈투란도트〉를 작곡했다. 미국 서부시대도 유럽인의 눈에서는 별천지였으니 1910년 뉴욕에서 초연된 〈서부의 아가씨〉가 그 예다. 술집 여주인인 미니, 도적 두목임을 숨기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 딕 존슨, 연적인 보안관 잭 랜스의 삼각관계를 다룬다. 니콜라우스 렌호프 프로덕션은 이를 할리우드 풍으로 현대화했다. 특히 폐차장에서 처형의 위기에 놓인 딕 존슨을 구하러 미니가 나타나는 장면은 스펙터클과 유머가 한꺼번에 압도적으로 구현되어 멋진 볼거리를 선사한다. 최근 화제의 프로덕션을 연이어 기획하고 있는 네덜란드 오페라의 2009년 최신 실황이며,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애형 소프라노이자 바그너에 장기를 지닌 에바-마리아 웨스트브뤼크가 푸치니의 매력적인 타이틀 롤을 창조했다.

[보조자료]

○ 독일 하노버 태생의 오페라 연출가 니콜라우스 렌호프(1939~)는 뮌헨과 빈에서 공부하고 1960년대에 바이로이트 가극장에서 빌란트 바그너와 지휘자 카를 뵘의 조수로 경험을 쌓았다. 연출가 데뷔는 1972년 파리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이었으며 바그너 〈반지〉 4부작을 샌프란시스코와 뮌헨에서 각각 진행했다. 뮌헨 실황은 일본에서 영상물로 발매되기도 했다. 비교적 추상적인 무대를 이용하되 극중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연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는데, 명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관객과의 편안한 소통도 중시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 〈서부의 아가씨〉의 주인공 미니는 '여장부형'이다. 푸치니의 다른 오페라로 보자면 〈마농 레스코〉나 〈라 보엠〉, 〈나비 부인〉의 주인공과는 크게 다르고 〈토스카〉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할 것이다.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연인을 구하고자 말을 타고 권총을 든 채 달려오는 피날레 장면은 특별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때부터 미니는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오랫동안 미니에게 신세를 졌던 사내들은 그 애절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존슨의 목에 걸었던 올가미를 벗겨주는 것이다.



Opus Arte DVD OA 1041D
[2DVDs]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프란츠 하블라타(작스)/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발터)/ 미카엘 폴레(베크메서)/
미카엘라 카우네(에파)/ 아르투르 코른(포크너) 외/ 제바슈티안 바이글/ 바이로이트 페스티발

증조할아버지의 대작을 맘껏 비틀어 놓은 카타리나 바그너의 바이로이트 데뷔작

2008년의 '마이스터징거' 실황은 두 가지 면에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증손녀인 카타리나의 바이로이트 데뷔 프로덕션이라는 점과 더불어, 드레스리허설이 아닌 실제 관객들 앞에서 펼쳐진 공연실황을 수록한 최초의 영상물이라는 점이다. 카타리나는 독일문화의 우수성을 역설했던 증조할아버지의 이 대작을 맘껏 비틀어놓았다. 각각 타이프라이터를 두들기는 시인과 길거리 화가로 변신한 한스 작스와 발터의 모습도 놀랍지만, 바그너를 비롯한 독일 문화의 대표 예술가들이 우스꽝스러운 가면으로 등장하는 3막 5장의 서두나, 한스 작스의 마지막 사자후가 음산한 모노드라마로 변형된 피날레는 전통주의 바그네리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다. 하지만 이 희극오페라에 불필요하게 이식되었던 국수주의적 망령과 과도한 권위주의를 완벽하게 제거해낸 참신한 시도라는 호평도 만만치 않았다. 마지막 커튼이 내려진 후 각 진영을 대변하는 엄청난 야유와 환호의 맞대결까지도 이 영상물에 생생하게 수록되었다. 관객들로 가득 채워진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내부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보조자료]

○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의 주인공인 한스 작스는 실존 인물이다. 1494년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576년 같은 도시에서 사망하였다. 당시를 대표하는 마이스터징거였으며, 시인이자 희곡작가였다. 또한 오페라에 나오는 것처럼 구두공이기도 했다. 일생에 걸쳐 6,000곡 가까운 노래를 남겼다고 하나 현존하는 것은 약 4200여 편이다. 비극과 희극 몇 편도 함께 전해져온다.

○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는 1868년 뮌헨에서 초연되었던 희극적인 내용을 담은 바그너 유일의 오페라다. 16세기중반 남부독일의 자유도시 뉘른베르크를 배경으로 하며, 각 직업 길드의 명가수(마이스터징거)들의 노래경연대회가 드라마의 중심소재가 된다. 떠돌이 기사 발터는 첫눈에 반한 에바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노래경연대회에 참석할 것을 결심한다. 에바를 짝사랑하던 서기 베크메서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발터와 경쟁하게 된다. 위대한 마이스터징거 한스 작스의 도움과 우여곡절의 소동 끝에 마침내 발터는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뉘른베르크의 시민들은 독일 문화의 우수성을 소리 높여 노래하면서 이 장엄한 오페라는 막을 내린다. 원래의 내용은 이러하지만, 카타리나 바그너가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비틀어놓았을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Opus Arte DVD OA 1046D

R.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린다 왓슨(엘렉트라)/ 제인 헨셸(클리템네스트라)/ 마누엘라 우흘(크리소테미스)/
르네 콜로(애기스트)/ 알베르트 도멘(오레스트)/ 크리슈티안 틸레만/ 뮌헨 필하모니커

적과 흑의 강렬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친모살해의 잔혹드라마

'엘렉트라'는 1909년 드레스덴에서 초연 당시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던 문제작이다. 딸에 의한 친모살해를 다룬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그리스 비극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의 내용이 우선 충격적이었으며, 이를 방대한 편성의 오케스트라의 격렬한 사운드로 표현한 슈트라우스의 음악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본 영상물은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유력한 계승자인 크리슈티안 틸레만이 지휘봉을 잡음으로서 화제가 되었던 2010년 초순 바덴-바덴의 축전극장에서의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사망했던 명연출가 헤르베르트 베르닉케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으로, 단순화된 무대 위로 흑과 적의 극명한 색채대비를 통해 엘렉트라의 불타는 복수심과 불안정한 심리 변화과정이 강렬하게 표출된다. 린다 왓슨과 마누엘라 우흘은 각각 엘렉트라의 강인함과 크리소테미스의 유약함을 효과적으로 연기하였고, 그로테스크한 외모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제인 헨셸의 클리템네스트라와 왕년의 헬덴테너 르네 콜로가 열연한 애기스트도 각별하다.

[보조자료]

○ 슈트라우스는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그리스 비극에 기초하여 완성한 호프만스탈의 리브레토를 사용하여 '엘렉트라'를 완성하였다. 오페라의 이야기 배경은 트로이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당당히 개선하지만, 아내 클리템네스트라와 그녀의 내연남 애기스트에 의해 도끼로 살해당한다. 아가멤논의 큰 딸 엘렉트라는 남동생 오레스트가 돌아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기만을 학수고대하지만, 여동생 크리소테미스는 복수에 미온적이다.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오보로 엘렉트라의 복수극도 위기를 맞지만, 결국 엘렉트라와 오레스트는 친모와 그 연인을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완결한다.

○ 본 공연은 지난 2002년 작고한 독일의 명연출가 헤르베르트 베르닉케가 1997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를 위해 마련했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1946년생의 바덴-뷔르템부르크 출신의 이 연출가는 브라운슈바익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뮌헨에서는 디자인을 차례로 전공하였다. 처음에는 의상담당으로 오페라 계에 진출하였지만, 이내 연출 쪽으로 자신의 진로를 바꿨다. 1978년 다름슈타트에서 올렸던 헨델의 '벨사자르'가 그의 데뷔 연출작이었다. 이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베를린 도이치오퍼, 브뤼셀 모네극장,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빈 슈타츠오퍼,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등의 유럽 일급 극장들을 두루 오가며 왕성한 연출활동을 펼쳤지만, 2002년 4월 16일 56세의 많지 않은 나이로 병사하였다.

ARTHAUS MUSIK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Arthaus DVD 101 529

브라운펠스: 새들

데시레 랑카토레(나이팅게일)/ 브렌든 조바노비치(희망)/ 제임스 존슨(절친)/
마틴 갠트너(후투티)/ 스테이시 탭픈(굴뚝새)/ 브라이언 멀리건(프로메테우스)/
매튜 무어(독수리-제우스)/ 제임스 콘론/ LA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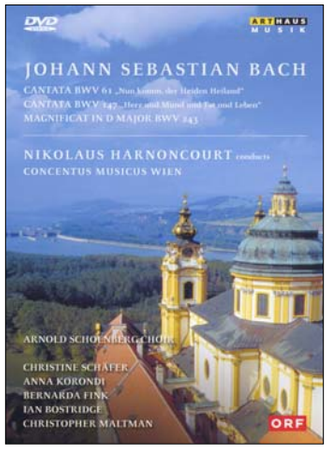
'퇴폐음악'의 딱지를 떼로 다시금 걸작의 반열로 화려하게 부활한 오페라

제3제국 당시 유태계나 나치에 비판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은 '퇴폐음악'(Entartete Musik)이라는 딱지를 달고 연주가 금기시되었다. 한때 독일 낭만음악의 계승자로 각광받았던 발터 브라운펠스의 오페라 '새들'도 그 중 하나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에 기초한 이 오페라는 정치에 대한 풍자를 담은 흥미진진한 드라마에 바그너나 R. 슈트라우스를 연상케 하는 중후한 음악이 더해진 수작이다. 인간세계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길 원했던 이들의 백일몽과도 같은 이야기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연상케 하는 동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브라운펠스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 오페라의 공연 빈도도 점차 느는 추세다. 본 영상은 실력파 지휘자 제임스 콘론의 명쾌한 해석과 현존 최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한 사람인 데시레 랑카토레의 명인기가 돋보이는 2009년 LA 오페라의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보조자료]

○ 발터 브라운펠스(1882-1954)는 후기낭만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작곡가이자 퀼른 음악원의 설립자로 20세기 초반 독일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작곡가다. 제3제국의 등장과 함께 유대의 피가 섞여 있었던 그는 모든 공직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작품들도 '퇴폐음악'이라는 딱지를 달고 금기시 되었다. 다행이도 종전까지 그는 살아남았고, 과거의 모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과거와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 1920년에 뮌헨에서 초연된 2막 오페라 '새들'(Die Voegel)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극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의 동명희극을 내용으로 한다. '희망'과 '절친' 두 사람은 인간사에 회의를 품고 자신들의 이상향을 향해 떠난다. 그들은 새들을 충동질하여 구름 속에 새로운 문명세계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모습 역시도 새처럼 변해간다. 이들은 하늘의 신과 지상의 인간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계획이었으나, 제우스가 낙뢰로 이들을 응징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모두들 각자의 길로 흩어지지만, 나이팅게일과 사랑에 빠진 '희망'은 그곳에 남기로 결심한다.



Arthaus DVD 101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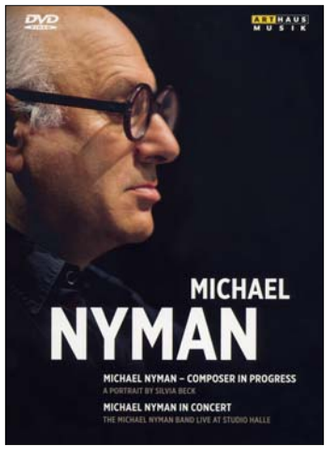
JS 바흐: 마그니피카트, 칸타타

칸타타 BWV61 '오소서, 이교도의 구주여', 칸타타 BWV147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마니피카트 BWV243

크리슈틴 섀퍼(sop)/ 안나 코론디(sop)/ 베르나르다 핑크(alt)/ 얀 보스트리지(te)/
크리스토퍼 몰트맨(bass)/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빈 콘첸투스 무지쿠스

우리 시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연주하는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빈과 린츠 사이의 다뉴브강변 높은 언덕 위에는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바로크양식의 건축물 중 하나인 멜크 수도원이 위치한다. 화사한 프레스코들로 장식된 이 수도원 내의 콜로마니 잘에서 지난 2000년에 펼쳐졌던 아르농쿠르와 빈 콘첸투스 무지쿠스의 특별한 바흐 콘서트가 DVD로 출시되었다. 최근 들어서 베토벤 이후의 정통 관현악 레퍼토리에 보다 치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르농쿠르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바흐 종교음악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이다. 아르농쿠르의 카리스마와 더불어, 크리슈티안 섀퍼, 안나 코론디, 베르나르다 핑크, 얀 보스트리지, 크리스토퍼 몰트만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절창이 연주회의 완성도를 더한다. 프로그램도 매우 알차다. 바흐의 가장 화려한 종교합창곡인 마그니피카트 BWV243과 함께, 두 칸타타 BWV61 '오라, 이교도의 구세주여'와 BWV147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가 연주되었다. 특히 바흐의 가장 유명한 선율 중 하나인 BWV147 중의 코랄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의 감동은 각별하다.



Arthaus DVD 101 526
[2DVDs]

마이클 니만 에디션

마이클 니만 라이브 앨범 + 포트레이트 'Composer in Progress'

클래식과 락의 세계를 가장 멋지게 접목시켰던 마이클 니만의 음악세계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은 제인 캄피온 감독의 영화 '피아노'의 배경음악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이전부터 영국의 실험주의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와의 긴밀한 협력 작업을 통해 '프로스페로의 서재',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정부'등의 음악을 완성했었다. 또 그보다 앞서는 현대음악에 관한 명저 '실험주의 음악: 케이지와 그 이후'의 저자이자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음악계에 처음 도입했던 음악학자 겸 저술가였다. 락음악을 방불케 하는 박력 넘치는 그루브와 감각적인 서정미를 겸비한 그의 음악 스타일은 크로스오버의 가장 성공적인 예로 많은 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본 BOX는 니만 애호가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그의 음악이력과 음악 외적인 다양한 활동상을 담은 5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필름 'Micheal Nyman: Composer in Progress'와 더불어, 'In Re Don Giovanni', 'Water Dance', 'Miranda', 'Against Conspiracy'등의 대표작들을 연주한 2009년 스튜디오 할레에서 있었던 마이클 니만 밴드의 콘서트 실황이 합본되어있다.

Arthaus DVD 101 536

훔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최고의 가족 오페라, 최고의 그림책 작가 모리스 센닥과 만나다

〈헨젤과 그레델〉은 독일 작곡가 엔겔베르트 훔퍼딩크가 원래 자기 여동생의 부탁으로 만든 작품이다.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숲에서 길을 잃은 가난한 남매, 과자의 집, 아이들을 구워 과자로 만드는 마녀, 자식을 찾아 나선 부모... 이런 설정이 환상과 모험, 공포와 사랑을 듬뿍 담은 이 오페라의 매력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그림책 작가인 미국의 모리스 센닥은 오페라 무대장치와 의상 제작에도 남다른 솜씨를 발휘하곤 하는데, 1999년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실황인 동 영상물도 그 산물이다. 무대 위에서 동화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 오페라는 원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배역이 여성이어서 오빠인 헨젤도 메조소프라노가 부른다. 그런데 이 공연에서는 마녀 역에 테너를 배치하여 동화적인 익살을 한층 잘 살려냈다. 과연 〈헨젤과 그레텔〉의 최고 영상물의 하나다.

Arthaus DVD 107 185

마츠 에크: 아파트먼트

모던 댄스로 관찰한 아파트의 삶 : 소통과 소외가 공존하는 곳

북유럽 최고의 안무가 마츠 에크는 〈지젤〉, 〈백조의 호수〉등 고전 발레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급진적인 현대적 해석을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머리 백조들이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의 국내 공연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아파트먼트〉는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한 마츠 에크의 신작 발레이며, 전자악기를 연주하는 플래쉬 콰르텟의 생음악을 배경으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 인간 군상의 행태를 암울하고 기괴하게, 그러면서도 유머와 사랑의 표현을 곁들여 그려내고 있다. 에크는 'apart'가 '분리, 괴리'의 뜻을 지녔음에 주목하여 생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인 동시에 소외의 현장으로 아파트를 그려냈다. 세계 최고의 무용수들인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왈(주역무용수)다섯 명을 포함하여 열네 명의 단원들이 고전 발레의 옷을 벗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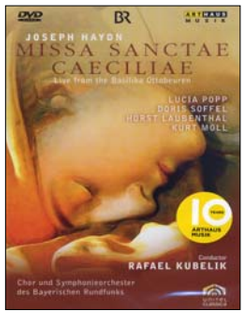
[구, TDK DVUS-BLAP 동일영상물]

Arthaus DVD 107 177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우리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백조'

이 세상에는 훌륭한 발레리나들이 많이 있지만 '발레리나 아졸루타(ballerina asoluta)'로 불리는 절대적 경지에 오른 무용수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신이 빚어낸 발레리나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키로프 발레를 거쳐 현재 볼쇼이 발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계 각지의 일류 발레단에 초청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발레리나 아졸루타이다. 2005년 초가을에 서울을 방문한 볼쇼이 발레의 개막 공연(10월 5일, 지젤)에도 당연히 그녀가 나섰다. 2004년 4월 밀라노 라 스칼라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자하로바를 객원 주역으로 초빙하고 지크프리트 역에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미남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를 기용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연되는 프티바-이바노프의 안무가 아니라 구소련의 블라디미르 부르마이스터가 개정한 안무를 사용한 보기 드문 공연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2막의 호숫가 장면은 이바노프의 안무를 그대로 살리되 오데트가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하는 짧은 프롤로그를 삽입하고 1, 3, 4막의 구성에도 상당한 손질을 가했다. 해피 엔 딩으로 끝을 맺는다. **[구, TDK DVWWBL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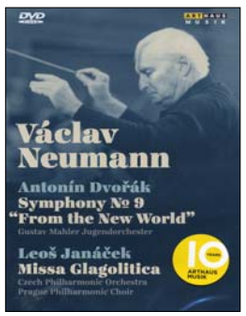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533

하이든: 성 세실리아 미사

공연이 끝나고도 모든 청중이 정적에 빠져든 기적적인 명연!

바이에른 주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토보이렌 성당은 로코코 양식의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하다. 1982년 이곳에서 당시 바이에른 방송 오케스트라를 이끌던 라파엘 쿠벨릭이 합창단과 루치아 폽, 쿠르트 몰을 위시한 최고의 독창진과 함께 하이든의 '성 세실리아 미사'를 연주했다. 그런데 푸가에 의한 화려한 합창으로 연주가 끝난 다음에도 극한의 감동을 받은 청중은 아무도 박수를 칠 수 없었다. 쿠벨릭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미소가 떠오르고 박수 대신 성당의 종소리가 정적을 깨뜨린다. 그 기적적인 실황이다. 성 세실리아는 3세기에 로마에서 순교한 여인인데,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찬가를 부름으로써 교회 음악의 수호자로 추앙되었다.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바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이 곡은 원래 성모 마리아를 위한 것이지만 성 세실리아 축일(11월 22일)에 연주된 바람에 '성 세실리아 미사'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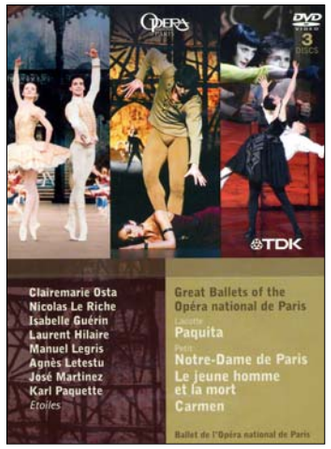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535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체코 노지휘자와 가장 젊은 오케스트라가 만난 최고의 신세계 교향곡

20세기의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빛낸 최고의 지휘자가 바츨라프 탈리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라파엘 쿠벨릭과 바츨라프 노이만이다. 특히 노이만은 쿠벨릭이 서구로 망명한 시기에 체코 필하모닉의 전통을 지켜내면서 구동독에도 진출하여 전후 동유럽을 대표하는 지휘자가 되었다. 그는 1990년(70세)에 체코 필에서 은퇴했는데, 이 영상물은 바로 그 해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구스타프 말러 청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한 것이다. 이 악단은 지금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90년 당시에는 아바도에 의해 창설된 지 겨우 4년이 지난 애송이 오케스트라였는데, 조국 체코를 대표하는 교향곡을 셀 수 없이 지휘했을 노지휘자가 이 젊은이들로부터 최고의 명연을 뽑아냈다. 이와 더불어 1987년 체코 필의 근거지인 루돌피눔의 드보르작 홀에서 지휘한 야나체크의 대표작 〈글라골리틱 미사〉가 실렸다.



DVWW-BOXBALLET

파리국립오페라 발레단을 대표하는 공연실황 모음집

1. 〈파키타〉

100년 만에 전막으로 복원된 스페인 배경의 고전 발레 명작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파키타〉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초연된 낭만 발레였지만 러시아로 전해진 다음에 마리우스 프티파가 덧붙인 고전 발레 스타일의 피날레 덕분에 유명해졌다. 이 피날레는 요즘도 갈라 공연에 포함되는 가장 인기있는 레퍼토리의 하나이지만 원작은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복원전문 원로 안무가 피에르 라코트는 프랑스에서 초연된 원형을 재현하고자 1세기 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전막 공연에 참여한 발레리나와 인터뷰했던 옛 기억과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108분짜리 전막 발레로 되살렸다. 물론 유명한 피날레 장면도 프티파의 안무에 의거하여 덧붙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유명한 부부 무용수인 아녜스 레테스튀(파키타)와 호세 마르티네즈(루시앙)이 주역을 맡은 2003년1월 최신 실황이며 아름다운 화질과 음질을 보장하는 영상물이다

2.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 문화계의 역량을 응집해 놓은 화려한 무대

뮤지컬의 큰 성공과 더불어 다시금 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무용가 롤랑 프티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꼽추 콰지모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한 편의 멋진 모던발레극으로 승화시켰다. 프티는 1965년 자신이 객원안무가로 있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위해 이 작품을 준비하였고, 프랑스 영화음악계의 대부인 모리스 자르에게 음악을 맡겼다. 바로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사랑과 영혼',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주옥같은 명화들의 음악들로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친숙한 이름이다. 본 영상물은 1996년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이자벨 게랭(에스메랄다), 니콜라 르 리쉬(콰지모도), 로랑 일레르(프롤로 주교), 마뉘엘 르그리(페뷔스)라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또한 화려한 원색으로 무대를 수놓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의 의상들 역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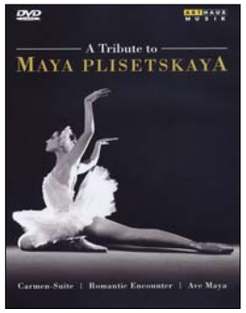
3. 〈젊은이와 죽음 & 카르멘〉

천재성으로 빛나던 롤랑 프티의 젊은 시절을 대표하는 걸작 두 편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출연한 영화 〈백야〉를 기억하는가? 특히 그 도입부를 장식한 가슴을 후벼내는 듯 음산한 발레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롤랑 프티가 22세에 안무했던 〈젊은이와 죽음〉이란 걸작이다. 롤랑 프티는 80세가 넘은 아직까지도 현역 안무가로 활약하고 있지만 겨우 20대이던 1940년대 후반에 가장 번득이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것이 1946년의 〈젊은이와 죽음〉,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공연 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1949년의 〈카르멘〉이다. 작품, 공연, 영상물로서의 질이 완벽한 3박자를 이루어 20세기 발레의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최상의 영상물.

Arthaus DVD 107 197

Arthaus DVD 107 203



Arthaus DVD 101 539

롤랑 프티: 젊은이와 죽음 & 카르멘

천재성으로 빛나던 롤랑 프티의 젊은 시절을 대표하는 걸작 두 편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출연한 영화 〈백야〉를 기억하는가? 특히 그 도입부를 장식한 가슴을 후벼내는 듯 음산한 발레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롤랑 프티가 22세에 안무했던 〈젊은이와 죽음〉이란 걸작이다. 롤랑 프티는 80세가 넘은 아직까지도 현역 안무가로 활약하고 있지만 겨우 20대이던 1940년대 후반에 가장 번득이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것이 1946년의 〈젊은이와 죽음〉,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공연 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1949년의 〈카르멘〉이다. 본 DVD는 롤랑 프티가 마르세이유 발레의 예술감독을 물러난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2005년 7월 실황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가장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무용수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니콜라 르 리쉬가 두 작품 모두 주역을 맡았다. 〈젊은이와 죽음〉에서 보여준 치열한 연기력과 그 감동은 바리시니코프를 넘어섰다고 할 정도이다. 〈카르멘〉은 르리쉬의 아내이자 역시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왈(주역 발레리나)인 클레어마리 오스타가 나섰다. 작품, 공연, 영상물로서의 질이 완벽한 3박자를 이루어 20세기 발레의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최상의 영상물. **[구, TDK DVWW-BLYMCA 동일영상물]**

조지 발란신: 한여름 밤의 꿈

2007년에 은퇴한 알레산드라 페리의 기념비적 라 스칼라 공연

알레산드라 페리는 카를라 프라치를 이어 이탈리아가 배출한 세계적 발레리나다. 런던의 로열 발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명성을 얻은 후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로 이적했고 고향 밀리노의 라 스칼라 발레,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발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만44세가 된 2007년에 은퇴한다고 선언하고 6월 23일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에서 마지막 공연을 가졌다. 본 실황은 이보다 약간 앞선 2007년 2월의 라 스칼라 발레 실황이다. 늘 그래왔듯이 중년에 접어들었어도 앳된 외모와 완벽한체형은 경탄의 대상이다. 수록된 작품은 조지 발란신의 〈한여름 밤의 꿈〉. 줄거리 없는 신고전주의 발레를 주로 만든 그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담은작품인데,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극에 독일의 멘델스존이 곡을 붙이고,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사람이 안무한 것을 이탈리아 무용수들이 춤춘 것이다. 페리의 상대역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미남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가 나섰고, 볼레에 앞서 이탈리아 발레계를 대표한 마시모 무루까지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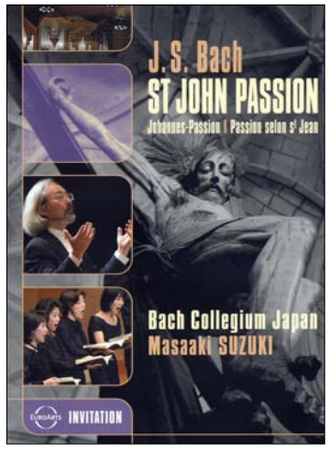
마야 플리세츠카야

볼쇼이 발레의 전설적 발레리나가 선사하는 종합선물세트

마야 플리세츠카야(1925~)는 볼쇼이 발레의 영광을 상징하는 최고의 발레리나였으면서도 소비에트 정권의 요구사항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충실할 것을 거부한 카리스마 넘치는 무용가였다. 소비에트의 여권(女權)의 상징이자 수년 전 세계 각지에서 펼쳐진 80세 기념 갈라에서도 직접 춤을 춘 철의 여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나온 플라세츠카야의 편집 영상물이 몇 개 있었지만 이 DVD는 그 이상이다. 쿠바의 알베르토 알론소가 그녀를 위해 안무하고, 남편 로데온 셰드린이 편곡한 〈카르멘〉 전체가 다 수록된 것은 물론, 심금을 울리는 차이코프스키의 관현악 모음곡을 사용한 〈로맨틱 인카운터〉, 고전 발레리나로서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자는 미녀〉중 '장미의 아다지오', 말러 교향곡 제5번의 아다지에토에 안무한 롤랑 프티의 〈장미의 죽음〉, 모리스 베자르가 '아베 마리아'를 그녀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찬사인 〈아베 마야〉가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DVD

www.euroar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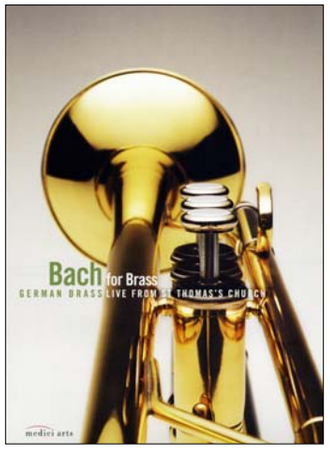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0396

JS 바흐 : 요한수난곡 BWV245

게르트 튀르크(복음사가)/ 미도리 스즈키(sop)/ 로빈 블레이즈(alt)/ 스티븐 맥레오드(bass)/ 마사아키 스즈키/ 바흐 콜레기움 재팬

일본이 배출한 세계적인 바흐 스페셜리스트 마사아키 스즈키의 요한수난곡

과거 '바흐의 열정'이라는 황당무계한 타이틀을 달고 라이선스로 발매되었었던 마사아키 스즈키의 요한수난곡이 유로아츠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국내시장에 선보인다. 2000년 7월 20일 도쿄 산토리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본 DVD는 바흐의 칸타타시리즈와 4대 종교걸작들의 레코딩을 통해 세계적인 바흐 연주자로 자신의 명성을 확고히 정립한 마사아키 스즈키와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빼어난 연주력을 눈과 귀로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과도한 감정이입을 배제한 채 담백하게 진행되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연주는 요한수난곡의 순음음악적인 아름다움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현존 최고의 복음사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게르트 튀르크가 복음사가와 테너독창을 겸하였고, 바로크 종교음악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인 카운터테너 로빈 블레이즈와 베이스 슈테판 맥레오드가 참여하여 연주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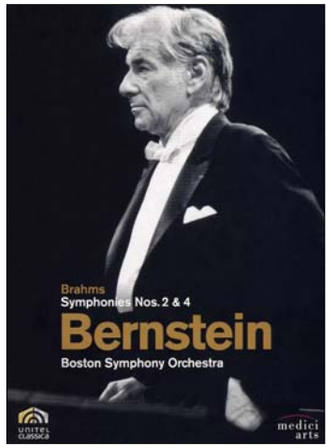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0338

브라스로 듣는 바흐

진정한 명인기로 빛나는 금관악기 앙상블의 빛나는 향연

바흐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사람이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고풍스러운 면이 있다. 악기와 그 음향도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요즘 악기로 바꾸어 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중에는 〈마태수난곡〉을 하모니카로 연주하거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바흐의 본거지였던 라이프치히의 성 코마스 교회에서 게르만 브라스가 라이브로 연주한 이 실황은 격이 다르다. 바흐의 관현악곡은 물론 오르간을 위한 음악이나 종교음악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브라스 앙상블 용으로 편곡했는데, 원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웅장한 사운드와 초절기교의 테크닉을 눈부시게 발휘한 것이다. 바흐 초심자는 물론 바흐에 일가견이 있는 애호가조차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화제의 영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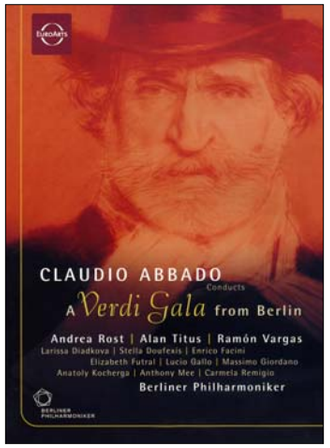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72138

레너드 번스타인의 브람스 교향곡

번스타인과 보스턴 심포니의 브람스, 미국 스타일의 중후함!

레너드 번스타인은 미국 땅에서 성장한 최초의 위대한 지휘자로서 뉴욕 필의 상임지휘자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1969년에 이 영광스런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 유럽에서의 활동에 주력한다. 그러나 이런 르네상스적 천재를 미국이 그냥 놔 둘리 없다. 1970년부터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한 오자와 세이지는 번스타인을 이 악단이 주관하는 탱글우드 서머 페스티벌의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자주 지휘를 부탁했는데, 브람스 교향곡 제2번과 제4번이 담긴 이 영상물은 동 페스티벌의 1972년 기록이다. 단원들이 밝은 푸른 색 단복을 입고 있는 것도, 관객들의 의상이 각양각색인 것도 탱글우스 실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격식을 덜 차린 공연이지만 번스타인의 장기였던 브람스의 장중하면서도 부드러운 풍취는 그대로 살아있다. 특히 이들이 뿜어내는 미국적인 에너지의 분출에 주목하시라!



Euroarts DVD 2050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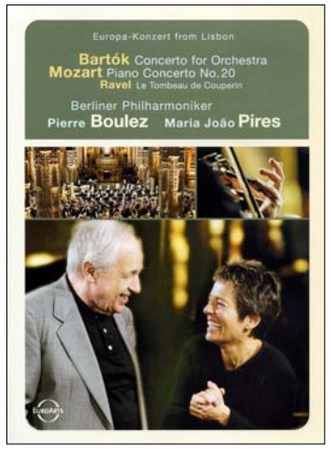
베를린의 베르디 갈라 (2000년 신년 이브 콘서트 실황)

연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라하 방송 합창단

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

고화질로 담은 베르디 축제!

2000년 12월 31일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베르디 갈라, 즉 베르디 음악 축제 실황 영상물이다. 〈가면무도회〉, 〈돈 카를로스〉, 〈라 트라비아타〉, 〈팔스타프〉의 주옥같은 명 아리아들이 아바도의 정교한 지휘로 불려지는데, '음악은 지상의 잔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체의 내용은 풍성한 노래의 잔치다. 뛰어난 감성을 지닌 이탈리아 출신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가수들의 황홀한 노래는 1시간 25분간 우리의 눈과 귀를 매료시킨다. 일본어,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자막. 무엇보다도 고화질의 영상물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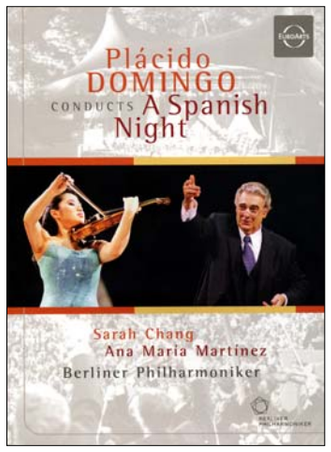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3079

2003년 베를린 필의 유로파콘체르트

라벨: 쿠프랭의 무덤/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번/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리아 조앙 피레스(pf)/ 피에르 불레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입완제품으로 만나는 불레즈와 피레스의 2003년 유로파콘체르트

매년 5월 1일 유럽의 명승지를 순회하는 유로파콘체르트(Europakonzert)는 발트뷔네 콘체르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을 대표하는 양대 이벤트로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본 DVD에는 16세기에 건축된 장엄한 건축물인 포르투갈 리스본의 제로니모스 수도원에서 펼쳐졌었던 2003년의 유로파콘체르트 실황이 수록되었다. 지휘와 작곡 양 분야 모두에서 음악계의 큰 존경을 받고 있는 피에르 불레즈가 지휘봉을 잡았던 이 날의 연주회에는 포르투갈이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가 참여하여 연주회의 감동을 더욱 배가시켰다. 베를린 필 단원들의 뛰어난 개인기가 빛을 발하는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과 라벨 특유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빛나는 '쿠프랭의 무덤', 그리고 피레스의 정갈한 터치가 돋보이는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0번이 함께 연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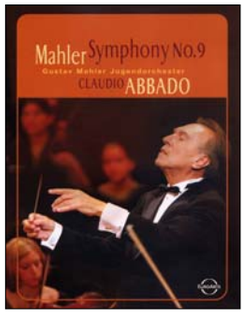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1238

2001년 베를린 필의 발트뷔네콘체르트

사라사테: 카르멘판타지, 지고이네르바이젠/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카프리스/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샤브리에: 에스파냐 외
사라장(vn)/ 아나 마리아 마르티네스(sop)/ 플라시도 도밍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라장이 연주하는 '타이스의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대표작들

매년 여름 베를린 필은 베를린 외곽 숲속의 야외공연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성대한 공개 콘서트로 한 시즌을 마무리한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사랑받고 있는 발트뷔네콘체르트(Waldbuhnekonzert)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테너에서 지휘자로도 멋지게 변신한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봉을 잡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연주자 사라장이 초빙되었던 지난 2001년의 발트뷔네콘체르트가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선보인다. '스페인의 밤'이라고 명명된 이날의 연주회는 사라장이 연주한 사라사테의 '카르멘판타지'와 '치고이네르바이젠'을 비롯하여,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스페인카프리스', 그리고 소프라노 아나 마리아 마르티네스가 노래한 사르수엘라의 아리아들 등등 스페인의 이국적인 정취를 담은 매력적인 레퍼토리들로 가득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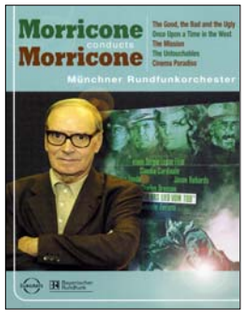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4008

말러: 교향곡 9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구스타브 말러 유겐트오케스터

아바도의 손을 통해 감동적으로 연출된 말러의 송별곡

2004년 4월 14일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있었던 아바도의 말러 교향곡 9번 실황이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선보인다. 아바도가 혼신의 열정으로 갈고 다듬은 말러 유겐트오케스터가 싱그럽고도 진지한 연주로 노거장의 감동적인 해석을 든든하게 뒷받침하였다. 교향곡 9번은 말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고별사와 같은 걸작으로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 마지막 악장의 감동이 각별한 작품이다. 말러는 선배 작곡가들의 9번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9번 교향곡인 '대지의 노래'에 번호를 붙이지 않기도 했지만,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이는 그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이 되고 말았다. 서서히 어두워져가는 조명과 함께 마지막 약음의 여운이 사라지고 이어지는 정적의 감동을 생생히 담고 있는 감동의 영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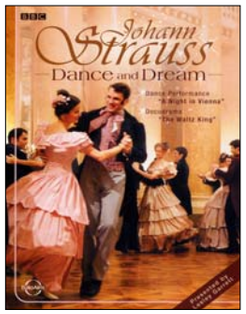
Euroarts DVD 2054698

엔리오 모리코네 뮌헨 콘서트
언터쳐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시네마천국, 미션 등의 영화음악들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엔리오 모리코네/ 뮌헨 방송오케스트라

영상으로 만나는 엔리오 모리코네의 대표 영화음악들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 엔리오 모리코네의 대표적인 선율들을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담은 영상물. 지난 2004년 10월 뮌헨 가스테익 필하모니에서의 콘서트 실황이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선보인다. 엔리오 모리코네가 직접 뮌헨 방송교향악단과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을 지휘했었던 이 날의 콘서트에는 '시네마천국', '언터쳐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석양의 무법자', '캐넌 인버스', '피아니스트의 전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석양의 갱들'과 같은 그의 대표적인 영화음악들이 총망라되었다. 특히 모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너무나도 유명해진 선율인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오보에 수석인 우리 연주자 곽연희의 감동적인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Euroarts DVD 2054248

J. Strauss: Dance and Dream

댄스 퍼포먼스: A Night in Vienna + 음악 다큐멘터리: The Waltz King
마스터스 빈 왈츠 앙상블/ 레슬리 가렛(sop)/ 알프레드 에슈베, 데이비드 찰스 아벨/ 빈 아카데미

눈과 귀로 함께 즐기는 정통 빈 왈츠의 매력

본 DVD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빈 아카데미가 정겹게 연주하는 '라데츠키행진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트리치트리치 폴카', '쉰브룬의 사람들' 등등 슈트라우스 일가와 요제프 란너의 대표곡들과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이 들려주는 빈 오페레타의 아리아들에 맞춰 마스터스 빈 왈츠 앙상블의 댄서들이 정통 빈 왈츠의 매력을 맘껏 발산하는 60분 분량의 댄스 퍼포먼스 'A Night in Vienna'와 역시 레슬리 가렛이 진행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의 일생과 음악세계에 관한 60분 분량의 흥미진진한 다큐드라마 'The Waltz King'이 함께 수록되었다. 본 DVD는 19세기 중반 빈의 상류사회를 한껏 풍미했던 화려한 왈츠의 매력을 눈과 귀로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DVD 703308

브람스: 독일 레퀴엠

크리슈틴 섀퍼(sop)/ 크리슈티안 게르하허(br)/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크리슈티안 틸레만/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슈티안 틸레만, 거장시대의 향수를 재현하다

브람스 최고의 합창걸작인 '독일레퀴엠'은 '레퀴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라틴 텍스트의 가톨릭전례음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독특한 성격의 작품이다. 브람스는 예배의 목적 보다는 콘서트를 위해 이 작품을 계획하였고, 루터의 독일어성경에서 죽음 및 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하여 텍스트로 삼았다. 본 DVD는 2007년 뮌헨 가슈타익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게르만 마에스트로 크리슈티안 틸레만이 뮌헨 필 재직시절 남겼던 콘서트들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의 하나로 꼽히는 명연이다. 틸레만이 만들어내는 여유롭고도 묵직한 흐름은 과거 거장시대 만들어졌던 이 작품의 여러 명연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다. 정상급 소프라노 크리슈티네 섀퍼의 잘 다듬어진 가창과 인기 절정의 바리톤 크리슈티안 게르하허의 풍부한 성량도 틸레만의 중량급 해석과 근사한 궁합을 이룬다.

C-Major DVD 702808

바그너 : 니벨룽의 반지

1. 라인의 황금 Das Rheingold
   상상 그 이상을 눈앞에 펼쳐놓는 21세기형 '링'의 장대한 서막

2. 바그너: 발퀴레 Die Walkure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풍족케 만드는 이 시대 최고의 '발퀴레'

3. 바그너: 지크프리트 Siegfried
   현란한 3D 컴퓨터 그래픽 위로 펼쳐지는 영웅 지크프리트의 성장드라마

4. 바그너: 신들의 황혼 Gotterdammerung
   갖가지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총동원된 21세기 형 SF 링의 장대한 대단원

C-Major DVD 703508
[2DVDs]

하이든: 오페라 〈달나라〉

베르나르드 리히터(에클리티코)/ 디트리히 헨셸(부오나페데)/ 비비카 쥬노(에르네스토)/
크리슈티나 란즈하머(클라리체)/ 마르쿠스 섀퍼(체코) 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빈 콘첸투스 무지쿠스

하이든 특유의 유쾌 발랄함으로 그려진 엉터리 달나라여행기

하이든은 교향곡과 현악사중주의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오페라에서만큼은 후대의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그의 오페라 15편중에서 서너 편 정도는 작곡가 특유의 유쾌 발랄한 악상과 고전 오페라의 간결명료한 매력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수작들로 서서히 재평가되고 있다. 1777년에 작곡된 오페라 '달나라'(Il Mondo dell Luna)는 이후의 '성기사 오를란도', '아르미다'와 더불어 하이든의 대표오페라로 손꼽힌다. 결혼을 반대하는 연인의 완고한 아버지를 코믹하게 골탕 먹이는 엉터리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오페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SF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어서 더욱 흥미진진하다. 2009년 12월 테아터 안 더 빈에서 펼쳐졌던 본 공연은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와 아르농쿠르의 여든 번째 생일을 함께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토비아스 모레티의 현대적이고도 기발한 연출과 아르농쿠르의 활기찬 지휘, 그리고 베르나르드 리히터, 비비카 주노, 디트리히 헨셸 등의 뛰어난 가수들의 열연이 어우러진 고전 오페라의 성찬이다.

[보조자료]

○ 현존하는 하이든의 오페라는 모두 15편이다. 이중 1791년 런던 방문 당시 완성된 마지막 오페라 '철학자의 영혼'(L'anima del filosofo)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여흥을 위해 완성했던 것들이다. 하이든은 자신의 오페라를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 연주된 다른 작곡가들의 오페라들도 자신의 스타일로 각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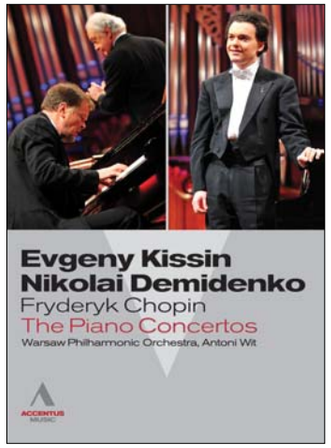
○ 3막의 드라마 조코소인 '달나라'(Il Mondo della Luna)는 특히 코믹한 내용의 극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카를로 골도니의 리브레토를 기반으로 완성하였다. 하이든에 앞서 이탈리아 작곡가 갈루피도 동일 대본으로 오페라를 완성했었다. 1771년 8월 3일 에스테르하지 대공의 둘째 아들 결혼축하연의 일환으로 초연되었다.

○ 오페라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엉터리 천문학자 에클리티코는 부오나페데의 딸 클라리체를 사랑한다. 기사 에르네스토와 그의 시종 체코는 각각 부오나페데의 또 다른 딸인 플라마니아와 그 가족의 하녀인 리제타를 사랑한다. 부오나페데는 두 딸을 부자들에게 시집보내기 위해 이들의 교제를 반대한다. 에클리티코와 에르네스토는 엉터리 달나라여행을 통해 부오나페데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부오나페데는 이들 커플들의 교제를 허락하고 만다.

Accentus Music DVD

www.accentus.com

악상투스 뮤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유로아츠를 통해 수많은 굵직굵직한 콘서트 실황들을 영상으로 담아내었던 저명한 프로듀서 파울 스마츠니가 2010년 3월 독립해서 설립한 새로운 고품격 클래식 전문 영상 레이블의 이름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2010년 부활절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과 키신과 데미덴코가 함께 출연한 바르샤바의 쇼팽 탄생 200주년 콘서트 등을 개시작으로 내놓은 악상투스 뮤직은 앞으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의 이 시대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최신 공연실황을 지속적으로 영상물로 발매할 예정입니다.



Accentus DVD ACC20104

쇼팽: 피아노협주곡 1, 2번
(+ 마주르카 Op.17–4, '혁명' 에튀드, 왈츠 E단조)

니콜라이 데미덴코(1번), 에프게니 키신(2번)/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쇼팽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키신과 데미덴코의 감동적인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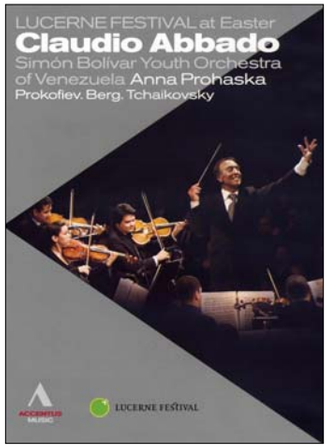
2010년 2월 27일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작곡가의 고국인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특별한 기념콘서트가 펼쳐졌다. 안토니 비트가 이끄는 바르샤바 필하모닉의 든든한 반주에 맞춰서 러시아가 배출한 최고 명성의 두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협주곡 1,2번을 한 무대에서 연이어 연주한 것이다. 에프게니 키신과 니콜라이 데미덴코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했던 신동 연주자와 뒤늦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대기만성형의 연주자라는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두 연주자는 모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반의 마에스트로들로 음악계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한 날 한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두 연주자 모두가 각자의 뚜렷한 개성과 완벽한 연주기교를 바탕으로 빚어낸 걸출한 연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물은 쇼팽 음악 애호가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데미덴코가 앙코르로 연주한 마주르카 Op.17–4와 키신의 앙코르 곡들인 '혁명' 에튀드와 왈츠 E단조의 감동도 각별하다.

Accentus DVD ACC20103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 칸타타

아버지 바흐를 직접 계승한 맏아들의 놀라운 칸타타들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흔히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죽음과 함께 독일 바로크 음악은 종언을 고하고 순식간에 고전적인 새로운 조류로 나아갔다. 바흐 자식의 경우 적어도 세 아들이 음악가의 길을 걸었지만 차남 칼 필립 에마누엘은 새로운 악기와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았고,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막내 요한 크리스찬은 남국적인 화사함을 장기로 했다. 단지 맏아들 빌헬름 프리데만(1710~1784)만이 보수적인 스타일을 견지했다. 그의 악보 상당수는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약탈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1999년에야 우크라이나의 키에프에서 발견되었다. 이때 발견된 4곡의 칸타타와 1곡의 신포니아를 담은 이 영상물은 빌헬름 프리데만의 탄생 300주년을 맞은 2010년에 랄프 오토가 이끄는 마인츠 바흐합창단의 연주 실황이다. 마치 아버지 바흐의 사라진 곡을 듣는 듯한 연주 자체는 물론 영상물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뛰어난 보석 같은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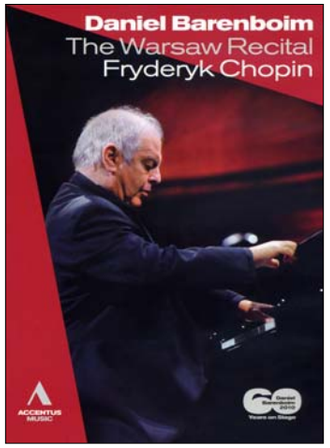
Accentus DVD ACC20101

2010년 루체른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
프로코피에프: 스키타이 모음곡
베르크: 루루 모음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안나 프로하스카(sop)/ 클라우디오 아바도/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와 희망을 연주하는 젊은이들의 감동적인 만남

현재 음악계 최고의 핫이슈 메이커들이 결합했다. 명실상부한 우리시대 최고의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의 값진 성과물인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최신 영상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2010년 3월 루체른의 KKL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으로, 아바도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대신 이 화제만발의 젊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감동적인 공연을 이끌어내었다. 프로코피에프의 '스키타이 모음곡'에서 베네수엘라의 젊은 연주자들은 자신들의 수장 두다멜의 휘하에서 보여줬던 것에 뒤지지 않는 강렬한 열기의 연주를 들려주며, 베르크의 '루루 모음곡'을 노래한 소프라노 안나 프로하스카의 절창도 인상적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교향곡'이다. 연주가 종결된 이후 숨 막힐 듯한 정적에 이어서 쏟아지는 전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노거장과 젊은 연주자들 모두의 눈가에 촉촉이 맺히는 눈물은 이 연주회의 감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ccentus DVD ACC20102

바렌보임의 바르샤바 쇼팽 리사이틀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다니엘 바렌보임의 바르샤바 리사이틀

프레데릭 쇼팽은 1801년 3월 1일(혹은 2월 22일)에 태어났으니 2010년은 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수많은 쇼팽 연주회가 세계 각지에서 열렸다. 이 영상물은 2월 28일 쇼팽의 고향 바르샤바에서 펼쳐진 다니엘 바렌보임의 리사이틀 실황이며 모든 곡이 쇼팽으로 채워졌다. 지금은 지휘자로 더 유명하지만 바렌보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고 지금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두 활동을 병행한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자주 연주했던 쇼팽을 최근에 다룰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렌보임이 누군가? 2007년 8월,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발표한 '현존하는 100대 천재'에서 전체 19위, 음악가로서는 3위, 순수연주가로서는 1위에 선정된 귀재답게 쇼팽의 본질에 단번에 육박해 들어간다. 소나타 제2번을 위시하여 왈츠, 폴로네이즈, 환상곡, 마주르카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으며, 모두 쇼팽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바르샤바의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바렌보임에게 찬사를 보냈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DVD 33608

브리튼: 베니스에서의 죽음

원작소설의 탐미주의와 베니스의 분위기를 극대화한 일급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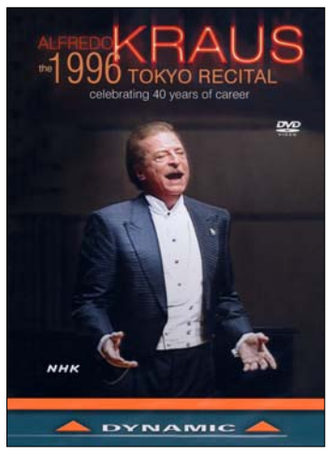
토마스 만의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1912)은 베니스로 휴양을 떠났다가 타지오라는 미소년의 절대적 아름다움에 매혹된 채 죽음을 맞는 독일 소설가 구스타프 폰 아센바흐의 얘기다. 이 소설은 루키노 비스콘티의 영화(1971)는 물론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1973)로도 만들어졌는데, 본 영상물은 이야기의 무대인 베니스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2008년에 공연된 실황이다. 특히 라 페니체의 상징적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자신의 신화적 상상력을 비스콘티가 구현한 영화적 감각과 결합시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냈다. 특히 타지오와 그 가족은 무용수가 맡는 역인데, 피치와 수많은 작업을 함께 한 루마니아 안무가 게오르게 얀쿠가 분위기에 적확한 춤을 만들어 냈다. 노장 브루노 바르톨레티가 지휘를, 현대물에 정통한 미국 테너 말린 밀러가 아센바흐를 맡았다.

[보조자료]

○ 벤자민 브리튼은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특히 오페라가 중요한데, 〈피터 그라임즈〉(1942)는 퍼셀 이래의 최고의 영국 오페라로 평가받았다. 1946년에는 규모가 작은 〈루크리시아의 능욕〉을 발표했고, 그 후 두 가지 유형의 오페라를 계속 만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영국적인 경향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모든 경향의 음악 기법을 종합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시도한 음악가이다. 그러나 기교만 쫓지 않고 항상 따뜻한 인간애와 정의감으로 일관하려 했다. 그것은 그의 음악 선율의 매력과 어울려 좋은 의미에서의 대중성을 발휘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원인이 되었다.

○ 브리튼은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이 오페라를 만들었다. 평생에 걸친 동성의 연인이었던 영국 테너 피터 피어스를 위해 쓴 것이며 그에 대한 최후의 사랑고백이었을 것이다. 또한 주인공 에센바흐가 맞이한 죽음은 브리튼 자신의 죽음에 대한 동경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프레도 크라우스, 1996년 도쿄 리사이틀



Dynamic DVD 33606

가장 기품 있는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 데뷔 40주년 리사이틀

스페인 음악계는 위대한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선배 알프레도 크라우스에 대해서 '스페인의 보물'이라고 불렀다. 그의 엘레강트한 미성과 무대 매너, 드높은 예술성이 테너 리리코의 극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크라우스는 나이가 들어도 음성의 아름다움을 전혀 잃지 않고 오히려 귀족적인 풍모가 더욱 짙어진 극히 드문 사례로 꼽힌다. 이 영상물에는 알프레도 크라우스가 오페라 경력 40주년을 맞은 1996년 6월에 동경 분카무라 오차드 홀에서 열린 리사이틀 실황이 담겨있다. 고전 이탈리아 가곡으로 시작해서 그의 장기였던 프랑스 노래들, 스페인 레퍼토리로 이어졌다가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까지 섭렵한다. 거의 고희에 도달한 나이지만 그 독보적이고 농익은 표현력에 대해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사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BR Klassik DVD

www.br-klassik.de

BR-Klassik DVD 900110

쉔베르크: 구레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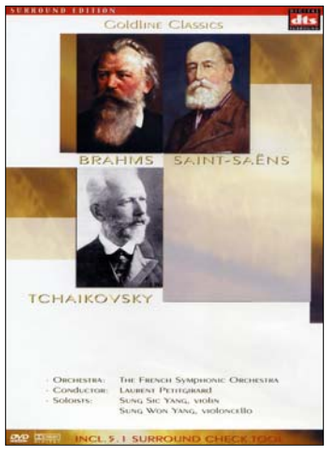
데보라 보익트(토베)/ 스티이 안데르센(발데마르)/ 미호코 후지무라(산비둘기)/ 헤르비히 페코라로(광대)/
미카엘 폴레(농부)/ NDR 합창단, MDR 합창단, BR 합창단/ 마리스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서양음악역사상 가장 방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다

'구레의 노래'는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극한치까지 도달한 대작 중의 대작으로 유명하다. 각각 25명씩의 목관과 금관, 11명의 타악기주자, 80명 이상의 현 파트, 4대의 하프를 필요로 하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쉔베르크는 특별히 주문제작한 악보를 사용해야만 했다고 한다. 여기에 다섯 명의 독창자와 8성부의 대규모 혼성합창단이 더해진다. 이미 무조음악을 시도하던 쉔베르크지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독일 후기낭만음악의 보수적인 전통을 충실히 좇았다. 이 작품의 내용은 중세 덴마크 설화에 기초한다. 발데마르 왕은 소녀 토베와 사랑에 빠지나, 왕비 헬비히가 토베를 살해한다. 분노한 발데마르는 신을 저주하고 그 대가로 부하들과 함께 밤마다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 된다. 방대한 규모로 인해 연주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이 대작을 우수한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본 DVD는 2009년 10월 뮌헨 가스타익에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 거장으로서의 마리스 얀손스의 진면목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Cascade DVD

www.cascade.com



Cascade 56005

생상: 첼로협주곡 1번
브람스: 이중협주곡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변주곡

양성식(vn), 양성원(vc)
로렝 프티지라르
프랑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양성식, 양성원 형제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한국 현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첼리스트 양성원 형제가 지난 1995년 프랑스 베르사이유의 트리아농 궁전에서 가졌던 연주실황을 DVD로 만난다. 첼리스트 양성원은 가장 인기 있는 로맨틱 첼로협주곡의 하나인 생상의 첼로협주곡 1번과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랑받는 작품인 차이코프스키의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로코코 주제의 변주곡을 당당하게 연주해나가며, 브람스의 만년 걸작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에서는 두 형제의 긴밀한 호흡이 빛을 발한다.

KBS 가 뉴 미디어 매체 사용자를 위한
'KBS Classic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공연정보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 1,000곡을 언제 어디서든 감상하고,
KBS 1FM 방송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QR 코드 스캔 후, 자동연결
2.http://classic.kbs.co.kr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3.애플 앱스토어, Tstore 에서 'KBS classic Library'검색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됩니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 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통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 Berceuse Op.16 (포레 :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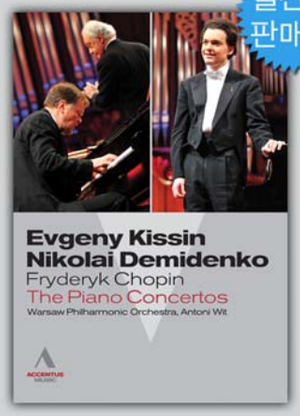
이용방법 (How to use) >>
곡 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통 컬러링(60초) 이용방법_
##7270142 + 통화 _ 음성안내 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NAXOS

쇼팽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키신과 데미덴코의 감동적인 선물

쇼팽: 피아노협주곡 1, 2번 (+ 마주르카 Op.17-4, '혁명' 에튀드, 왈츠 E단조)



Accentus DVD ACC20104

* * *

니콜라이 데미덴코(1번) / 에프게니 키신(2번)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2010년 2월 27일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작곡가의 고국인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특별한 기념콘서트가 펼쳐졌다. 안토니 비트가 이끄는 바르샤바 필하모닉의 든든한 반주에 맞춰서 러시아가 배출한 최고 명성의 두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협주곡 1,2번을 한 무대에서 연이어 연주한 것이다. 에프게니 키신과 니콜라이 데미덴코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했던 신동 연주자와 뒤늦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대기만성형의 연주자라는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두 연주자는 모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반의 마에스트로들로 음악계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한 날 한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두 연주자 모두가 각자의 뚜렷한 개성과 완벽한 연주기교를 바탕으로 빚어낸 걸출한 연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물은 쇼팽 음악 애호가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데미덴코가 앙코르로 연주한 마주르카 Op.17-4와 키신의 앙코르 곡들인 '혁명' 에튀드와 왈츠 E단조의 감동도 각별하다.

* * *

표지사진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걸작오페라 2차분

〈아울로스뉴스〉 2010년 12월호
통권 제 46호 발행 : 2010년 12월 6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